

월간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월간 우리문화 · 2002년 1월호(통권159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2002 **1**

ISSN 1599-4236

謹賀新年

2002년 元旦

全國文化院聯合會 任員一同

고 문	권노갑, 최형우, 오영우, 김대성, 이관용, 박영재	
회 장	이수홍	
부 회 장	최병홀(이사·관악문화원장)	송승영(이사·경기도지회장)
	고경재(이사·양양문화원장)	김수진(이사·군위문화원장)
지 회 장	권용태(이사·서울시지회장)	정연구(부산시지회장)
	노영하(대구시지회장)	류해상(이사·대전시지회장)
	강명보(광주시지회장)	이대근(이사·강원도지회장)
	박효근(충청북도지회장)	김현구(이사·충청남도지회장)
	김병학(이사·전라북도지회장)	조남식(이사·전라남도지회장)
	이창교(경상북도지회장)	허종성(이사·경상남도지회장)
	양중해(제주도지회장)	
이 사	김현풍(강북문화원장)	김동순(인천문화원장)
	이은구(이천문화원장)	최종규(포천문화원장)
	장수봉(충주문화원장)	장 영(조치원문화원장)
	이인호(익산문화원장)	오용갑(목포문화원장)
	김희규(영암문화원장)	이원희(경산문화원장)
	정지옥(영주문화원장)	김인한(안동문화원장)
	김상수(함양문화원장)	오필근(사천문화원장)
감 사	천광인(화성문화원장)	박준영(나주문화원장)

2002년을 역동적인 문화의 해로

전 국의 문화원가족 여러분, 임오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단기4335년 서기2002년이 되는 새해에는 어느 새해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문제이지요. 6.15 공동선언 후 화해분위기가 급진전하더니 1년도 못 넘기고 서서히 냉각되면서 최근에는 국제적인 긴장 분위기가마져 돌고 있으니 어떤 경우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하겠다는 국민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북쪽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도 큰 피해를 입을거니까요

국내에서는 두가지 스포츠 이벤트와 두가지 중요한 정치행사가 있습니다. 세계60억 인구의 축제인 월드컵이 열리고 연 300억명이 TV를 지켜보고 30여만명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선수들이 외국선수들과의 경기에서 높은 기량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경기장, 숙박, 식사, 교통, 관광통역등 준비도 잘 될 것입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친절, 청결, 질서, 정직' 등 생활문화개선운동이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한줄서기, 경기장내 질서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문화가 중국이



이 수 홍 | 전국문화원연합회장

나 일본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어떤 면에서 문화적 감동을 줄 수 있는나 하는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 지방문화원 여러분의 지혜가 동원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88올림픽의 경험으로봐서 우리민족은 큰일을 만나면 단결하고 어려울 때 돌파해나가는 원천적 에너지가 강합니다. 부족해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며 다이내믹한 기질이 있습니다. 문화유적을 봐도 인공적인 가식보다는 자연에 대해서 겸손하고 정이 넘치면 서도 대담한 역동성이 있는 것이 특색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능히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한국문화는 새로운 지식정보 시대에 무한한 지평선을 향해 약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세계인

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아시안게임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네거리 길목을 차지한 지정학적 중심부의 문화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양대선거에서 지방문화원은 기본법에 정해진대로 정치적·종교적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법의 정신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문화가 성취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정치발전에서 문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방문화원이 대단결을 이룬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봉사하시는 여러분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그곳에 가고싶다

‘동양의 나폴리’ 통영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동양의 나폴리’ 통영에서 들은 우스갯소리 하나. 누군가 주동이 되어 ‘고교동창 모여라’고 알리면 불과 30분내에 다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조그만 항구도시다. 인구 14만명.

체감온도가 제주도 보다 더 포근하고 아늑하게 느껴진다. 일년중 두번 이상 눈구경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불만 사항(?).

유인도 41개, 무인도 1백9개등 1백50개의 부서도서가 보석처럼 예머럴드 바다위에 흩어져 있는 통영은 천혜의 자연자원으로도 이름이 높지만 ‘파도야 어찌란 말이냐’의 시인 유치환과 극작가 유치진 형제를 비롯 작곡가 윤

이상, 소설가 박경리, 시인 김춘수, 화가 전혁림등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걸출한 대가들이 나고 자란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그런가하면 통영오광대·남해안 별신굿·승전무·갯일(笠子匠)·나전장·소목장·두석장·염장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종목 12명의 예·기능 보유자가 활동하고 있다. 임란후 3백년동안 통제영이 주둔하고 12공방이 존재했던 이 곳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통영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며 2002년을 맞고 있다.

새해 아침 고동을 울리며 물살을 가르는 고깃배들. 통영 사람들은 아들이라도 배위에선 아버지에게 “매라!” “노라!” 반말을 한다. “아버지 줄 메이소” “아버지 그물 내리세요”라고 말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 그러다간 거친 파도속에 배가 산산조각 나고 생명을 잃을 지 모른다.

그래서 통영을 바다와 떼어놓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통영사람들 부터가 바다빛깔을 닮았다. 

봉수대 탐사... 飛鳶 고증... 日 문화교류...

지 난해 12월 17일. 통영에 내려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통영문화원이요”

택시기사는 더이상 묻지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지방출장중 택시를 타고 문화원에 가자고 하면 열의 아홉은 고개를 가웃거린다. 하지만 통영은 달랐다. 이 곳에서 통영문화원을 모르면 ‘수상한 인물’이다. 그렇다고 택시기사들에게 별도의 홍보나 교육을 실시한 것도 아니다.

“문화원 사업이 자주 언론을 통해 홍보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택시기사나 시민들이 문화원을 알게됐다”는 것이 김세운 통영문화원장(70)의 설명.

통영의 대표적인 등반단체인 일요산악회를 이끌고 9백31회째 주말 등반을 해오고 있는 김 원장은 지난 98년부터 잡목과 가시덤불을 헤쳐가며 통영 주변의 사적지를 탐사한 결과 굵직굵직한 향토사 자료를 발굴해내는 성과를 올려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옥지도 암각 유문 및 패총유적지, △우산 봉수대 유적, △사랑도 칠현 봉수대, △고인돌 추정 지식묘, △광도면 내촌마을 망산, △읍도 공룡발자국 화석, △천왕산 봉수대, △좌이산 봉수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봉수대·망대는 올해로 4년째 답사를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두개만

더 답사하면 통영주변의 20개 모두를 답사하게 된다고 한다. 한번 휘 둘러보기 식의 답사가 아니라 철저한 발굴조사와 현장 확인이 뒤따르는 답사다.

일례로 구절산의 ‘곡산봉수대’를 오르면 진해만이 내려다 보인다’는 얘기가 정말인지 증명해 보이기 위해 직접 봉수대에 올라 보기도 한다. 그 결과 곡산봉수대에서 진해만이 보인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이고 진해만을 볼려면 구절상 정상까지 올라야 한다고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봉수대는 지난 시대의 통신수단이지만 그 자리를 잘 활용하면 오늘날의 통신기지를 세우거나 관광전망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봉수대·망대를 답사하면서 그야말로 어부지리로 얻은 게 바로 ‘글썽이 섬’이라 불리는 ‘매물도의 명문’과 ‘당포진도’다.

마을 주민들의 구전을 토대로 글썽이 섬을 탐사하던 김원장 일행은 통영지에도 나와있는 왜장의 ‘칠언울시의 명문’을 발견하는 ‘월척’을 낚는다.

왜장이 자신을 바다조개에 비유한 통영지의 칠언울시에는 당시 일본이 겁없이 입진왜란을 일으켰으나 우리나라 수군의 저항에 부딪혀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뽕죽한 물체로 쓴 듯한 명문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이미 해독할 수 없는 상태라 통영지와 대조할 수 없었지만 매물도가 대대로 주민들에게 글썽이 섬으로 불리게 된 유례를 밝히는 첫번째 단추를 푸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의 부가적인 소득은 조선 후기 영남 서부 해안의 적을 차단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말해주는 당포진도를 규장각을 통해 입수해 햇빛을 보게 한 일이다. 이로써 당포성 복원과 함께 구당포 실체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다. 향토사료 발굴이나 탐사 뿐만 아니라 통영전통연인 비연(飛鳶)의 실체를 벗겨내는데도 팔목할 만한 업적을 쌓았다. 그동안

비연은 전통 연과 창작 연이 혼

김세운
통영문화원
원장





통영문화원은 일본 요코카이치시와 문화교류 조인식을 맺었다



초등학교생들이 스스로 제작한 연을 들어보이고 있다



봉수대를 탐사하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통영문화원 회원들



왜장의 명문이 새겨진 바위를 확인하고 있는 통영문화원장

재해 있어 그 중수도 30여종 · 50여종등 주장이 분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영문화원은 2년에 걸친 문헌조사와 간담회등을 통해 통영 전통연의 종 수를 확정짓고 기원, 이름, 제작소등에 대해서도 밝혀냈다.

통영연은 머리연 · 기봉산연 · 돌쪽바지기연등 16종 26가지. 통제영시대의 12공방에서 제작됐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은 '난중일기'나 '징비록' 등 임란 당시 그 어떤 문헌에도 전술신포연으로 쓰였다는 기록이 없음을 밝혀냈다.

통영문화원은 이미 6개월전에 통영전통연을 도지정 문화재로 선정하기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일본의 연 도시로 이름난 요코카이치시(八日市)와 국제문화교류 조인식을 갖고 10여회 상호 방문해오고 있다.

한편 통영문화원은 지난해 초 '통영문화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향후 문화원 발전을 확고히 다지는 초석을 마련했다. 1차적으로 5개년 동안 10억원을 목표로 하는 기금 조성에는 독지가만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통영문화원이 시민들의 문화원으로 더 위상이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

문 화군수' 고동주 통영시장(66). 그는 행정가이면서 문화인이다. 민선 초대 · 2대등 두번에 걸쳐 통영시장을 지내고 있는 고동주 시장(66)은 일찍이 경남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수필가이기도 하다. 수필집으로 '파도에 실려온 이야기' '사랑바라기' '동백의 씨' 등 6권이 있다. 취미는 등산. 통영의 대표적 화가들의 작품이 걸려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오늘의 통영 문화와 내일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통영을 '동양의 나폴리'라고 하는데...

통영과 나폴리는 똑같은 항구도시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나폴리는 지중해의 쓸쓸한 느낌이 드는데 반해 통영은 바다인듯 호수인듯한 정취가 있습니다. 나폴리를 갔다가 통영을 찾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나폴리가 유명한 건 '달밤' 때문이에요. 테너가 수들이 나와 '오! 솔레미오'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부르는데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다와 선율이 어우러진 분위기가 미항이라 불리게 된 요인이예요. 우리 통영도 바다와 어울리는 도시를 만드는 게 소망입니다.

통영문화원은?

통영문화원은 김세운 원장과 함께 김현식 사무국장 · 여 간사가 문화원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유료 회원 1백50명, 봉사요원 50명. 문화학교는 한국화 · 사진 · 서양화 · 서예 · 종이접기 · 전통무용 · 요리 · 컴퓨터 · 연 · 충효고장등 10개 과목이 개설돼 있다. 또 본관 뒷편 건물 1동을 옛스런 맛이 물씬 풍기는 분위기로 보수해 다한실(茶閑室)이라 이름 짓고 이곳에서 다도교육으로 '규수와 선비다례' 강좌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보통 때는 문화원 원로 임원과 회원들의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 보조비를 비롯 회비 · 협찬금등 1억원의 예산과 한산도 나전칠기축제 관련 특별사업비 1억1천만원등 약 2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5개 섬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 선보일 터

사랑도

노대도

비진도

장사도

소매물도

그러면 2002년 통영의 문화발전 계획은?

2002년은 우리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을 중심으로 한 '통영국제음악제'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를 통해 통영을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부상시키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바다와 어울리는 색과 빛·소리를 통한 도시 이미지 가꾸기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예로 통영에선 건물을 신축할 때 오렌지색의 지붕과 흰색의 벽이 아니면 준공검사가 안떨어질 정도로 바다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에펠탑이 밤에 거대한 불꽃으로 빛을 발하듯 통영უნ하도 밤새껏 푸른 등을 밝히는 아치가 있어 밤의 야경을 즐기려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유적지나 조각공원의 문화마당에서는 '갈매기 소리' '파도소리' '노젓는 소리' 등 바다와 어울리는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클래식을 누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란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도서지역이란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통영에는 1백50개 섬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랑도·노대도·비진도·장사도·소매물도 등 5개섬은 크루즈 관광을 위한 섬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3년전에 사랑도의 옥녀봉에 등산코스와 함께 여객터미널·주차장·해수욕장등 부대시설을 갖췄습니다. 덕분에 연간 4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또 노대도는 10개년 계획아래 조각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오늘(12월 18일)이 착공식을 하는 날입니다. 비진도는 동백나무·후박나무·잣밤나무·팔손이등 3백년 수령 내외의 수림과 희귀 야생난이 자생하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또 현재 무인도로 동백 수림이 우거진 장사도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한국의 대표적 꽃섬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매물도는 한쪽에 접안시설만 만들고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릴 계획입니다. 이밖에 산양 관광 일주도로변에 바다목장을 조성해 누구나 가볍게 들러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같이 바다를 배경으로 한 관광과 국제음악제가 결부될 때 유럽인들의 발길을 끌 수 있는 도시로 부상하리라 생각합니다.

고동주
통영시장



통영시문화원육성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문화와 관광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문화를 동반한 관광이라야만 가치와 영구성을 지닙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해 1월 19일 통영문화원 육성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영문화원은 향후 10년간 매년 1억원씩 10억원의 기금을 조성, 문향·예향에 걸맞은 문화원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통영시의 문화예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든 축제에 전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 마다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진 문화 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견학과 향토 역사 현장 탐방등이 그것입니다.

시장님이 관광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은?

우리고장은 발길 닿는 곳마다 관광지 아닌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추천하고 싶은 명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나 미륵산에서 바라본 한려수도에서부터 연화도 용머리에 이르기까지 점점이 이어진 통영8경은 절경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세계에 내려준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 생각되는 소매물도와 연화도의 비경은 통영을 찾는 손님들이 꼭 보고 돌아갔으면 하는 곳입니다.☞

통영문화원 추천 출향인사 인터뷰 파리 MB갤러리에서

“한국문화의 씨를 받아

통영 영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이한우 씨(74)는 실망스럽게도(?) 남방 서츠에다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다. 뽕덕모자나 파이프 담배를 연상시키는 예술가의 전형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동네 담뱃가게 아저씨’에 가까웠다.

인터뷰 간 날은 그가 고향에서 열린 초대전에 출품하고 돌아온 뒷날이었다. ‘바다-그 영원한 빛’이란 주제로 열린 원로화가 3인 초대전은 통영에서 보기 드물게 6천여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뤘다. 그는 고향에 내려간

김에 ‘평생 취미’인 낚시도 마음껏 즐겼다고 말한다.

“단순히 고기를 낚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한없이 고향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내 고향 통영엔 시가 있고 음악이 흐르고 그림이 있습니다”

화단 경력 60년. 통영의 평범한 집안에서 6남3녀중 맏이로 태어난 그는 15년간 초중고 교사와 나전칠기 사업을 하다 71년 서울로 상경해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그 결과 국전에 무려 6회에 걸쳐 특선



통영출향화가 이한우

초대전 연 화가 이한우

나만의 그림을 그린다”

한데다 78년에는 제27회 문화공보부장관상, 2000년에는 보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그의 화풍은 3기를 거치는데 초기에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가 배어있는 고가구를 비롯 도자기·꽃·과일등 정물을 묘사했으며 80년대에 들어서는 고향의 바다, 서정적이면서 목가적이고 정적이면서 시적인 바다를 많이 그렸다. ‘통영바다작가’라는 닉네임이 따라 붙은 것도 이때쯤이다. 80년말부터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우리강산’ 시리즈를 그리는 작업을 계속해 지난해 4월 세종갤러리 초대전에 이어 경남에서 첫 순회전을 가졌다.

초가집과 밭고랑, 개울, 뻗죽뻗죽 솟아난 산들. 느낌은 포근하고 전통적인

데 표현은 화려하고 현대적이다. 평론가들은 검은 색으로 둘러싸인 그림의 각 구성요소는 현대생활의 고난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통영의 산과 들·개울로 통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깊게 배어있다. “임란이후 3백년동안 통제영문화를 꽃피웠던 통영은 일제시대 들어서도 윤이상·유치진·유치환등 선각자에 의해 독자적인 선비문화권이 계속 유지된 지역입니다”

그는 우리의 5천년 문화와 역사속에서 ‘한국화의 씨’를 받아 자신만의 영원한 그림으로 싹틔우는 작업을 부단히 해오고 있다.

2000년에는 프랑스 유네스코 미로미술관 초청단체전에서도 주목을 끌었

으며 이를 계기로 파리에서 1백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MB갤러리에서 미술평론가와 전 UN사무총장 내외등 수많은 인파가 쇄도한 가운데 개인전을 여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특히, 이 개인전은 당시 잔타크 프랑스 부시장과 한국의 강홍빈 서울시부시장등 한불 공동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9월에는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문화박람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했으며 21세기 한국미술여정 100인전과 남북평화통일 미술합동전을 열기도 했다.

“프랑스가 스페인의 피카소를 키워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듯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바로 인식해 산업화를 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는 “해동(解凍)하면 파리로 건너가 전문도 넓히고 전시도 하며 약2년쯤 살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평생 취미가 낚시라고 말하는 그가 어떻게 파리에서 고향바다를 잊고 살지 궁금하다. **문**

아름다운 우리강산 시리즈315×129.5
1999 캔버스에 유채





통영8경

①연화도 용머리 ②소매물도 ③남망산
공원 ④사랑도 옥녀봉 ⑤통영운하 야경
⑥달아공원에서 본 석양 ⑦한산도 제승당
⑧미륵산에서 바라본 한려수도

통영의 볼거리 · 먹거리 · 살거리



복국



충무김밥



소목장



통영누비



두석장



나전철기

월간

우리 문화

2002 · 1

2002년 1월호(제16권 1호 통권 159호)
 등록 / 라-3627(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겸 편집인 / 李秀洪
 사무총장 / 安辰洙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2년 1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까치는 면에서 온 가족들을 다 맞은 모양입니다. 눈빛은 한떨기 감송이를 서로 마주보며 설날 오후의 고즈넉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집안에선 뛰노는 손주들의 왁자지껄함만큼이나 구들방 지퍼는 연통 연기가 험잡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진웅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한국 출판미술협회 운영위원.
 국제 어린이 도서협의회 회원.
 1988년부터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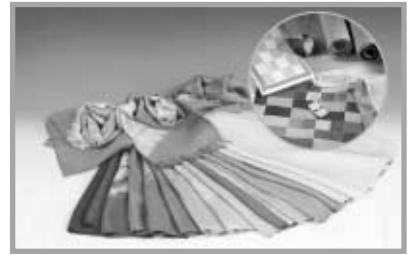
02 ◆ 고향이 좋다⑤-통영시



32 ◆ 행사- '지역문화의 해' 이제부터 시작이다



28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⑩



38 ◆ 일본공민관참관가- "문화는 국력의 하나"



- | | |
|---|----------------------------------|
| 1 ◆ 신년사 · 2002년을 역동적인 문화의 해로 | 이수홍 |
| 2 ◆ 고향이 좋다⑤ · '동양의 나폴리' 통영 | 강민철 |
| 10 ◆ 날줄세줄 · 임오년 말띠해의 작은 소망 | 이종철 |
| 12 ◆ 역사再조명 · "명성황후는 일본정부가 시해했다" | 최문형 |
| 16 ◆ 행사 · 향토사 연구 논문 편수 · 수준 매년 향상 | 강민철 · 박계현 |
| 22 ◆ 미니특집 · 올해 승정원일기 原文 1/15 인터넷에 뜬다 | 강민철 |
| 26 ◆ 문화계 CEO의 삶과 일 · (주)한국문화원 · 지방문화원 협력관계 "절실" | 박계현 |
| 28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⑩ · "자연의 빛깔을 뽑아 옷감에 물들이면..." | 강민철 |
| 30 ◆ 기고 · '三殺方' '大將軍方' '三災' 아시나요? | 이원철 |
| 32 ◆ 행사 · '지역문화의 해' 이제부터 시작이다 | 박계현 |
| 35 ◆ 이달의 문화인물 · 신유박해 순교자 '정약종' | 편집부 |
| 36 ◆ 이달의 세시풍속 · 양반가문 부인대신 '문안비'가 새해인사 다녀 | 박후식 |
| 38 ◆ 일본공민관 참관가 · "문화는 국력의 하나" | 윤수옥 |
| | "역사교과서 왜곡은 비판 마땅하나 친절 · 환경보호..." |
| | 신간선에 놓고 온 일행의 카메라 찾아준 '일본' |
| | 지방문화원의 미래는 밝다 |
| 48 ◆ 대중문화 · 잊을 수 없는 전쟁의 기억, 그 속에 녹여낸 애뜻한 부부애 | 박계현 |
| 50 ◆ 생활속의 지혜 · 유유는 50대이후 남 · 녀 골다공증 '예방약' | 편집부 |
| 52 ◆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이웃 | 편집부 |
| 54 ◆ 지역문화 뉴스 · 모순 잘 조화해 현명한 서울 만들어 나가야 | 편집부 |
| 60 ◆ 신간안내 · 종로구 이야기판의 설화 | 편집부 |
| 62 ◆ 문화원 네트워크 · 전국에 214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 편집부 |
| 64 ◆ 지방문화원 홈페이지 순례 · 대전대덕문화원 | 박계현 |

임오년 말띠해의 작은 소망

천 마가 갈기를 흔들리며 탄력 있게 초원을 달릴 때 말 위에 탄 미끈한 몸매의 여인은 얼마나 고혹적인가? 하늘을 향해 히히힃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앞발을 차올릴 때, 지혜로운 노인이나 마주(馬主)는 새 역사(役使)의 의미를 금세 알아차린다. 신성한 하늘의 사자로서 새로운 인물의 탄생을 예언하는 영물로서, 평화를 지키는 군마로서, 단기 4335년 임오년의 말은 당당히 한국문화의 대지를 발로 차며 화살처럼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빼어나 인류문명 가져온 열두띠 동물

말의 발생지인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에쿠우스(Equus)가 유라시아로 이동한 후 야생말 멕시코 무스탕과 남미 시메론이 이용되다가 자취를 감춘다. 그 후 1492년 콜럼버스의 방문 이후 스페인말이 거꾸로 북남미에 이식된다.

말은 11개월 동안 임신하고 이듬해 봄 4, 5월에 출산을 한다. 젖을 떼 후 5~6개월 동안은 발육의 전성기이고, 혼자 행동하며 귀리, 밀기울, 건초, 짚여물, 청초 따위를 먹는다. 24개월 이상 되지 않으면 경주, 경마에 나가지 못하며, 세 살이 되는 해 6, 7월부터 신마(新馬)라 하여 레이스에 참가하고, 다섯 살 가을에 전성기를 맞는다. 여섯 살 때부터는 스피드가 차츰 떨어져 노마(老馬)

로 접어든다. 이러한 말의 수명은 보통 25~30년 가량이다.

말은 비록 덩치가 크지만 대량의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어서 아주 긴 소화기관을 가졌다. 왜곡이 없고, 잘 발달된 다리의 근육과 살이 붙지 않은 긴 다리는 탄력성이 풍부해 달리기와 오르기에 빼어난 기동력을 발휘한다. 선 채로도 피로하지 않고 목덜미의 힘줄이 좋아, 서서 자는 습성이 있다.

말이 힘세고 기민하고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았더라면 우수한 말을 가진 기마민족의 빼어난 인류문명은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20세기에 말의 기동력이 기계와 자동차로 대체되지 않았다면 급속한 인류문명의 발전에도 그림과 서정성의 여유가 생겼을 것이다.

한반도 중부 이남에는 북방말과 다른 오늘날의 제주말과 비슷한 아주 작은 과하마(果下馬)가 있었다. 과하마는 동예(東濊)의 토산으로 산에 오르기 편리한 말이라고 '삼국지' 위지 동이전은 기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말로 일본 큐슈 도카라(吐噶喇) 말이 있다.

말은 열두 띠의 일곱번째 동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를 뜻하고 남쪽방향과 음력 5월을 상징한다. 또한 말은 농경, 군사, 통신·교통, 운반 등 여러 모로 쓰일 뿐만 아니라 가축과 말갈기, 힘줄, 말똥은 각기 갖과 활, 주머니를 만들며 펄감으로 이용되었다. 그야말



이 종 철
국립민속박물관장

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이다.

말은 우리 문화 상징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일찍이 청동기 시대의 혁대 장식문양과 고리, 칼손잡이 장식, 주술적 호신부 장신구로 응용되어 남아있고, 신라와 가야의 의식용 말모양 토기 술잔, 긴목항아리에는 선화로 말을 그리거나 토제인형으로 말을 붙인 명품 등으로 남아 있다. 이런 유물에서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올렸던 박혁거세의 후예들을 상상해 본다. 왕릉으로 추정되는 경주의 고분에서는 자작나무 껍질에 하늘을 나는 백마그림이 출토되었다.

이른바 '천마도'라 불리는 유물이 바로 그것이다. 고대 신라의 특급무기인 말을 탄 무사상은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과 말에 대한 신앙을 보여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말의 쓰임새를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예컨대 고대의 애니메이션처럼 귀인이 머리에 쌍깃털 장식을 하고 말을 타고 가는 기마도를 비롯해 말을 타고 호랑이에게 활을 겨누는 수렵도가 있다. 그리고 말머리에는 화관을, 궁둥이에는 마부 둘이서 여러 가지 깃발로 갖추고 요란한 치레를 한 말을 끌고 가는 그림 등이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부여조의 기록에는 큰못에 이르러 말이 돌 밑의 금빛 개구리모양의 어린애(金蛙) 탄생을 알려주는 영매구실을 한다든지, 박혁거세의 신화처럼 나정(蘿井) 옆에서는 백마 한 마리가 붉은 알의 탄생을 인도하고 국조 탄생을 축하해 준다. 이처럼 고대에는 말은 영험하기 이를 데 없고, 신령스럽게 여겼다.

마을 제사를 모시는 당집에는 나무말, 돌말, 쇠말, 도자기말이나 마신도가 모셔진다. 말은 동제 성황신이 타고 다니는 승용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승의 허물을 떨쳐버리고 저승의 구원 속에 평안함을 안겨주는 영매의 역할도 한다. 이 외에도 민속연회에서는 마상휠드하키라 할 수 있는 격구(擊毬)와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탁마희(躑馬戲)를 행했다.

민속박물관 인력보강도 이뤄졌으면

벌써 한해가 저문다. 머지 않아 임오년 말띠해가 찬란하게 떠오를 것이다. 직제보강의 헛수고에 바빴던 2001년의 아픔을 훌훌 떨치고, 2002년은 민속박물관이 봉사하는 인격체로서 다시 태어나는 해로 삼을 것을 다짐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행연습이라도 해야겠다.

욕심 같아서는 서울의 마루 언덕빼기에 있는 말무덤 서당당을 찾아 하늘의 사자인 말그림을 바치고, 10월 말날에는 고사라도 드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빌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과외 한번 시키지 못했는데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란 막내딸이 좋은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이다.

국가적으로는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이 문화입국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학예연구실(學藝研究室)과 문화교육국(文化教育局)의 조직 신설을 비롯해 학예·기술인력 28명이 보강되기를 빌고 싶다. 이를 바탕으로 한민족이 세계에 웅비할 2002 월드컵 한국 개최가 문화적 기념비로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한국의 얼을 심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일런가?

2001년 일본에서 도요타 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일본의 소비자에게 국적표시 없이 차량 선호도를 비교한 적이 있다. 그 결과 40대 60으로 현대차가 앞섰는데, 차량 국적을 밝힌 후의 결과는 90대 10으로 역전되어 나타났다. 이유는 '한국이 웬지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일본 민족학박물관과 한국 국립민속박물관의 연구원비는 120명:30명이다. 물론 분과 한탄에 앞서 문화적 인적 투자를 너무 소홀히 한 우리의 잘못이 문화천년 속에서 두고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실증이다.

이제 말띠해를 맞아 말처럼 강인하고 말처럼 고고한 문화적 삶을 살게끔 도와주는 도움이가 되고 문화 지킴이가 되고 싶다. 한해 행사로 지나가는 임오년이 아니라 민족이 웅비하고 문화로써 새천년을 주도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기에 어느 때보다도 말이 지닌 상징과 이미지는 더욱 우리에게 값지게 다가온다. **문**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 ㉠

“명성황후는 일본정부가 시해했다”

민 왕후는 주한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무뢰한으로 알려진 낭인들을 동원해 시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임 후 조선정황이 자국에게 갑자기 불리해져서 저돌적인 그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말하자면 일본정부와는 무관한 개인 차원의 사건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왕후 시해는 일본의 국익이 걸린 것으로 미우라 따위가 독단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일본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를 입증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일본정부가 민 왕후를 시해한 원인은 한 마디로 말해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그녀의 이른바 ‘인아거일책(引俄拒日策)’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주도한 3국간섭에 그들이 굴복, 이미 수중에 넣은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자 왕후는 재빨리 ‘인아거일책’을 강화해 일본에 대응했다. 즉 왕후는 전임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조선보호국화정책에 전면 도전했던 것이다.

왕후는 사태를 친일파 두목인 군부대신 조희연(趙羲淵)의 파면으로 몰고 갔는가 하면, 왕은 갑오경장의 전면 부정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6월(음)부터 시작된 이른바 경장은 자기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일본의 위협과 강압으로 친일파가 시행한 것임

으로 자신은 이에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칙령이나 재가를 전면 취소할 생각’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왕후는 먼저 러시아에게 한반도에서 물러난 청의 특권을 물려받게 해줌으로써 이 나라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러·일의 대립시대가 전개되는데는 이처럼 왕후의 ‘인아거일책’에서 연유되는 바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왕후를 지원했을 것이 분명한 주한러시아공사 웨베르가 있었다.

이에 일본으로서서는 이제 한반도에서 청보다 훨씬 강력한 러시아와의 대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민 왕후의 더욱 강화된 ‘인아거일책’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전승의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어지고 말았다. 일본은 전쟁이라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서야 겨우 확보한 한반도에서의 권익을 러시아는 민 왕후의 지원을 받아 그야말로 ‘부전승’으로 쉽게 얻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즉각 전면전으로 돌입할 수도 없었다. 청일전쟁을 방금 끝낸 상황에서 그들은 곧바로 또 다른 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도 시베리아 철도의 완공이 아직 요원하던 상황에서 전쟁을 벌일 수 없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 문 형
한양대 명예교수

다. 러시아는 물론 일본도 사태를 전면 전으로까지 몰고 가지 않는 한계 내에서 상대를 제압해 나가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인아거일'을 고집하는 민 왕후를 적극 회유하거나, 아니면 기회를 봐서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중에서 그들은 결국 후자를 택한 것이다. 요컨대 민 왕후 시해는 러·일의 대립 속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한반도 침투를 전쟁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차단시키려는 선수조치였다. 반면 아관파천은 러시아가 이 같은 일본의 도전에 직면해 역시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대응한 조치였다.

두 나라가 다 같이 전면전을 벌일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응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민 왕후 시해는 러일전쟁의 '전초전' 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 사건이 절대로 개인 차원의 사건일 수가 없는 말하자면 일본의 국익이 걸린 정부 차원의 사건이었다는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3국간섭 이후 긴박해진 국제정황이 일본정부로 하여금 먼저 민 왕후 시해라는 방법으로 선수를 치게 했던 것이다.

이노우에는 초헌법적 지위 누리던 정계 최고 실력자로 일개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공사직에 자원한 것은 '이변'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우선 그 주모자는 일본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하는 것이다. 군에서 예편 당해 일개 야인에 불과하던 미우라로서는 주한공사가 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민왕후 시해의 주범 이노우에 가오루(왼쪽)와 종범 미우라 고로

그로서는 당초 엄두도 낼 수 없는 중대사였다. 이에 대해 이토의 보좌역이던 와다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는 주일 영국공사 새도우(Ernest M. Satow)를 만나 '미우라는 이노우에의 정책을 수행할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1895. 7. 11), 노오드 차이나 헤랄드(1895. 11. 21)는 '이노우에가 민 왕후 시해의 주모자이고 미우라는 희생양에 불과하다'고 곧바로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노우에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그리고 그의 주모가 바로 일본정부의 주모가 되는 까닭은 또한 무엇일까. 이노우에는 많은 명치 지도자를 배출시킨 쇼슈(長州)출신으로 일찍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함께 영국 유학을 마친 뒤 메이지유신에도 함께 참여한 공로자의 한 사람이다. 제1차 이토 내각의 외상으로, 제2차 이토 내각의 내상으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토 수상 유고 시에는 수상 임시대리직까지 맡은 바 있는 메이지 정부 최고의 외교 및 재정통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토, 야마가타(山縣有朋) 등과 더불어 '젠로(元老)'라는 초헌법적 지위를 누리던 정계 최고 실력자이기도 했다. '젠로'란 비록

●

일본은 전쟁이라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서야 겨우 확보한
한반도에서의 권익을
러시아는 민 왕후의 지원을 받아
그야말로 부전승으로 쉽게
얻어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인아거일을
고집하는 민 왕후를 적극 회유하거나,
아니면 기회를 봐서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중에서 그들은
결국 후자를 택한 것이다.

요컨대 민 왕후 시해는 러·일의
대립 속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한반도 침투를 전쟁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차단시키려는
선수조치였다.

반면 아관파천은
러시아가 이 같은 일본의 도전에
직면해 역시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대응한 조치였다.

●



친독파의 제1인자였던 아오키슈조와 그의 딸·손녀



이노우에의 천거로 내상이 되었으나 나중에 실각한 철종의 사위 박영효



궁궐 침입을 위한 낭인들의 두 거점인 한성신보사(위)와 파성관

헌법에 규정된 기관은 아니었지만 어떤 중요 국무에도 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말하자면 일본 최고

의 정책 결정자들이었다. 고무라 슈타로(小村壽太郎)가 외상이 되어(1902. 9. 20) 영일동맹론을 우선시킴으로써

이토, 이노우에 등 '켄로'들의 대러협상론에 제동을 걸기 전까지는 외교문 제도 외상이 아니라 이들 '켄로'가 좌 우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노우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일본 제일의 조선 통이라는 점에 있었다. 일찍이 강화도 조약 때부터 부사(副使)의 자격으로 활약했고, 외상으로서 제물포조약 체결을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한성조약을 체결 시에는 직접 특과 전권대신의 자격으로 갑신정변의 뒤처리를 도맡았다. 이토가 청과 천진조약을 맺기 위해 이홍장과 상대했다면 이노우에는 당시 일본 최대의 현안이던 조선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따라서 이런 거물이 일개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공사직을 자원한다는 것은 분명 이번이 아닐 수 없었다. 이토로부터 오오토리의 후임을 천거해달라는 의뢰를 받자 그는 곧바로 자신이 가겠다고 자천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임명(1894. 10. 15)과 동시에 마침내 10월 27일 서울에 부임했다. 이는 평양전투(1894. 9. 15)의 승리로 유리해진 전황을 기회로 살리기 위해 유능한 공사를 보내 조선보호국화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이토의 의지가 담긴 조치였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임명 동의와 함께 정부로부터 '조선에 대한 사무를 전결단행(專決斷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에게 주어진 이 '전결권'이란 조선정부와 체결하게 될 모든 조약의 협상 체결권을 비롯한 조선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이토는 이노우에에게 조선문제

를 통째로 내맡긴 셈이고, 이로써 이노우에는 그야말로 ‘백지위임장’을 받은 셈이 된 것이다. 이노우에의 시해 주모가 바로 일본정부의 주모가 된다는 연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노우에가 일본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을 실제로 주도했다는 구체적 사실은 ‘3국간섭’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 도쿄에 체류한 그의 24일간(6. 20~7. 14)의 행적을 통해 간취할 수 있다. 6월 4일의 각의(閣議)에서 3국에 굴복했던 일본이 이노우에가 도쿄에 체류한 직후 강경으로 태도를 바꾼(7. 19)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먼저 이노우에는 자국의 독립상태를 우려하여 7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민 왕후를 기증금(寄贈金)으로 회유하여 러시아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이른바 ‘문치’적 대한방략(文治的對韓方略)으로 일관했다. 러시아와의 전면대결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기증금이라는 미끼가 민 왕후의 ‘인아거일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략은 이토나 외상 무쓰(陸奧宗光)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론의 호응도 받지 못해 사실상 실행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일본 국내의 속사정에 정통했던 그자신도 자기의 7월 2일자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노우에의 ‘문치’적 대한방략은 처음부터 하나의 제스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후 10일도 지나기 전에 돌연 이와는 정 반대의 대한정략을 제기했다. 자신과는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른 ‘무단적’ 이미지의 미우라를 자기의 후임으로 추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미우라 천거야말로 일본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온건전략으로써는 조선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니 ‘무단적’ 방법으로 선회하도록 유도한 이노우에의 결단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그의 정책결정은 이 보다 4~5일 전의 정황변화에 따라 추진될 수가 있었다.

이노우에는 일본정부로 부터 ‘조선에 대한 사무전결단행권’을 부여 받았고 후임으로 미우라를 천거한 것은 조선문제를 ‘무단적’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일본정부는 7월 5일자로 주독공사 아오키 슈조(青木周藏)로부터 간섭 3국사이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국제환경이 결정적으로 호전되었음을 알리는 보고를 받았다. 즉 ‘3국연합은 아직 매장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물론 도쿄에서도 이미 그런 기미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제 이 보고는 3국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대한정책을 강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인 7월 6일에는 서울에서 박영효 실각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다시 전해졌다. 박영효는 이노우에의 천거로 내상이 된 친일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는 그의 실각을 조선정부에서 일본 세력의 전면 거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제환경이 유리해진 상황에서 일본정부로 하여금 대한방략을 강경으로 선회케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박영효의 실각 역시 실은 이노우에가 미리 짜놓은 계략의 결과물이었다. 이노우에는 내정개혁을 표방하며 대원군과 민 왕후의 갈등을 이용하고 왕실과 내각을 분리시킴은 물론 박영효와 김홍집 같은 친일 각료 상호간의 사이까지 이간시키는 등 고도의 모략을 한껏 구사했다. 이노우에야말로 분열과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조선 왕실과 정부를 마음껏 농락한 노회한 정략가였다.

이처럼 이노우에는 자국정부의 대한방략을 강경으로 이끌어 놓고 천연스럽게 서울로 귀임했다(7. 19). 그러자 일본정부는 조선에 추가로 주게 될 기증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조건을 달아놓았다. 그리고 정작 8월 24일의 각의를 통해서도 기증금 제공을 승인할 임시의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의결함으로써 민 왕후를 회유한다는 이른바 ‘문치적’ 방략을 원천 봉쇄하고 말았다. 이는 일본정부가 그들의 대한정략을 ‘무단’으로 바꾸어 놓은 말하자면 민 왕후 시해를 결정한 간접 조치였다.

이노우에의 미우라 천거(7. 11)에 뒤이어 일본정부는 3국에 대해 강경으로 변신했고(7. 19), 곧이어 미우라를 주한공사로 내정했다(7. 22). 그리고 이 같은 그의 강경 방략은 미우라의 주한공사 정식 임명(8. 17)과 내각에 의한 임시의회 불개최결정(8. 24)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민 왕후 시해의 결정 바로 그것이었다. 민 왕후 시해는 조선에 대한 전결권을 가졌던 이노우에가 주도했고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제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및 시상식

향토사 연구 논문 편수 · 수준 매년 향상

박 계 현 기자 fire@kccf.or.kr

지난 12월 16일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제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 발표회 및 시상식'이 거행된 것.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김정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이성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장실 문화관광부 예술국장 등 내외귀빈과 전국문화원가족, 재야향토사학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안진수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임동권 심사위원장의 심사총평, 수상자 발표, 시상식에 이어 각계 인사들의 축사와 만찬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권 심사위원장은 "향토문화를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높이 평가하고 싶다. 지난해보다 많은 55편의 논문 가운데 입상하지 못한 응모작 중에도 우수한 작품들이 있었지만 상에 수의 제한이 있어서 모두에게 시상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내 고장 내 향토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어 향토문화는 연구되고 개발되어 후대에 건전하게 전승될 수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욕적으로 노력하는데 대해 뜨거운 격려와 경의를 표한다. 명년에는 더 많은 응모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심사평을 발표했다.

심사평에 이어 고경재 전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이 수상자를 발표했고 곧바로 시상식에 들어갔다. 이번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국무총리상)은 충남 금산 출신의 강성복 씨(일제하 해방이

후 '송계' 연구-충남 금산지역을 중심으로)가 안았다. 이하 수상자 명단.

〈문화관광부장관상〉 △논문부문 최우수상=정우영 씨의 '운계사 고석비와 감악산 무속신앙의 시원' △사료부문 최우수상=김강산 씨의 '척주동해비문과 미수 축려문의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상〉 △논문부문 특별상=백승명 씨의 '천안 남부 광덕산 지역 사찰연구-개천사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논문부문 우수상=이윤선 씨의 '도서지역 무속과 변천에 대한 연구-무당 송순단과 진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료부문 우수상=유대균 씨의 '정선아리랑 전수교육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상〉 △논문부문 우수상=정광순 씨의 '조선시대 한성부 '자산감역관'의 직무에 관한 연구-김극태의 '퇴현일기'를 중심으로', △사료부문 우수상=이은우 씨의 '서산 지방 시장의 역사'.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논문부문 장려상=서종원 씨의 '위도지역 파시 일고찰', 박종안 씨의 '밀양수산제에 대한 검토', 곤노게이코 씨의 '강강술래와 일본 전통 가무와의 비교고찰', 김일용 씨의 '통영운하에 관한 연구' △사료부문 장려상=심현용 씨의 '경북 울진지역 고인돌 조사보고', 정기범



씨의 '음성 거북놀이', 이현우 씨의 '대부도 지명유래에 대한 고찰'.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6년간 이 행사를 대비해서 산야에 묻힌 향토사료를 찾기 위해 고향산천을 맨발로 뛰어준 지방문화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 행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자기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에 애정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현재는 국무총리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통령상으로 격상시키고 시상범위를 넓히면 전국의 문화유산보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은 김장실 예술국장을 통해 "향토문화는 우리문화의 뿌리인 동시에 민족문화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유형 혹은 무형으로 전해지는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창달하며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그 지방의 새로운 발전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정진해 우리의 향토문화가 더욱 꽃 필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은 갑자기 추워진 오늘의 날씨를 언급하면서 "겨울다운 추위가 있어야 다음해의 잡병을 감내할 수 있는 내성이 생긴다"며 "세계화 내지 지구촌화(Globalization)의 격류에 휩쓸리고 있는 요즘 세대에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향토사가들의 뼈저린 노

고가 있어 우리 한국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향토문화는 더욱 빛나고 있다"고 축하했다.

김정옥 한국문예진흥원장은 "문화원이 있어 지방문화는 발전될 수 있으며 한국의 지방문화원이 '알 카에다 테러조직' 처럼 그 거점과 전투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그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향토문화가 그 고장 발전의 기본자원으로 부각되면서 세상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그 중요한 일을 그동안 묵묵히 수행해온 문화원과 재야향토사학자 여러분의 희생적 노고에 감사드린다. 한국문화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우리문화의 기반 사업인이 창조적이고 뜻있는 행사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이성무 군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수상하신 분들이 평소 향토문화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 문혀있던 향토문화 유산을 조사 연구하고 이를 정리 발표해 오늘의 영예를 안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지방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크게는 국제사회에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여 나날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저력으로 작용될 것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문화가 수립돼야만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축사를 마쳤다.

축사에 이어 김선평 심사위원의 사회로 논문부문 대상을 차지한 강성복 씨, 논문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정우영 씨, 사료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김강산 씨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인사말하고 있는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의
격려사를 대독하고
있는 김장실
예술국장



심사총평하고 있는
임동권 심사위원장



수상자 발표하고 있는
고경재
전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



축사하고 있는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



축사하고 있는
김정옥
한국문예진흥원장



축사하고 있는 이성무
군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대상 받은 강성복 씨

日帝下 解放以後 ‘松契’ 研究-충남 금산지역을 중심으로

땀나무 · 풀비료 채취 조직 ‘송계’ 는 공동체 문화의 백미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이번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안은 강성복(38)씨는 닷익은 향토사학가다. 남들은 한번 받기도 힘든 대상을 지난 97년에 이어 두번째로 안았다. 이번 그의 논문은 ‘日帝下 解放以後 ‘松契’ 研究-충남 금산지역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권세가들에 의해 공리지(公利地)분할이 가속화되자 기층민들이 스스로 땀나무와 풀을 공동으로 채취하기 위해 조직한 ‘송계(松契)’에 대한 연구다. 송계는 전통적 주민 조직인 두레와 비슷하나 김매기가 아닌 산림을 매개체로 했다는 점과 우두머리를 ‘얹은대방’ ‘술대방’으로 불렀다는 점이 다르다. 자연히 송계 가입자가 두레 가입자인 경우도 많았다.

“물론 송계는 화목(火木)과 비료를 목적으로 조직됐지만 송계산 재산 운영을 통해 산신제 경비를 조달하거나 축제를 여는 등 공동체 문화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금산의 경우 송계와 농악과는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입니다. 논농사가 시작되기전 송계 구성원들은 나무를 하기 위한 초장길을 닦은 후 기세배나 풍물·농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송계는 금산에서만 156개가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입범위에 따라 독송계(獨松契), 리송계(里松契), 연합송계(聯合松契) 등으로 분류됐다. 자연촌을 단위로 조직된 가장 작은 규모의 독송계는 107개로 금산지역 송계의 근간을 형성했고 산림이 조악한 지역에서는 무려 10~40동리가 가입된 대규모의 연합송계도 7개소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연탄과 화학비료



가 등장하면서 송계의 기능과 역할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산악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금산에는 아직까지도 송계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더러 있을 뿐만 아니라 송계산 66개, 송계 9개등 75개에서 전통적인 송계의 기능이 일부 유지되고 있다. 강씨가 처음으로 송계를 알게 된 것은 10여년 전. 80년

대 후반 한국역사민속학회 춘계연구반에서 활동하면서. 그후 금산문화원으로부터 ‘용화리의 역사와 민속’에 대한 집필을 의뢰받아 자료를 조사하다 송계의 실체를 발견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그동안 강씨는 4백여개 마을을 발로 걸어다니느라 발이 부르틀 지경이었다. 마을이장·송계 책임자를 지냈던 노인들을 만나 송계에 대해 생생한 경험담을 채록할 수 있었고 우연히 시골집 장롱에서 송계 관련 문헌도 발견돼 연구를 체계화 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논문은 일제시대때 임정(林政)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학자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를 제외하며 처음이나 다름없어 금산의 ‘1천개 자연공원만들기’ 사업이나 국가 산림사를 연구하는 자료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일본 임학계의 한 연구자는 “조선시대 기층민들에 의해 운영된 송계에서 인류가 다음세기에 채택해야할 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구현되는 산림사회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씨는 95년 대전대덕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금산의 민속놀이’ ‘부여의 민속놀이’ ‘금산의 탐신양’ 등 여러 편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인터뷰 논문부문 최우수자 정우영 씨

雲溪寺 古石碑와 紺嶽山 巫俗信仰의 始原

“호국진혼 산천제익가 민간으로 전승돼”

정우영(36)씨는 1994년 신라의 소사(小祀)와 관련이 깊은 紺嶽山 정상에 있는 古石碑(일명 薛仁貴碑)를 조사 연구하던 도중 감악산과 적성 지역에 설인귀와 관련한 전설이 유독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유물유적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시군지와 역사자료보고서에 각각 명확하게 검증, 또는 규명되지 않은 채, 부정확한 전설과 구전만을 주된 근거로 소개해 학술적 해악과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정우영 씨는 감악산 주변에 산재한 고석비 및 무속신앙과 관련된 祭儀場所에 대해 사료적으로 검증 고찰해 무속신앙의 시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해보고자 하는 뜻을 다지게 됐다.

‘雲溪寺 古石碑와 紺嶽山 巫俗信仰의 始原’을 연구하면서 정우영 씨는 감악산 정상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감악사와 효자석굴, 그리고 현존하는 고석비(설인귀비)는 발해의 남침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방호(防護)해야한다는 신라인들의 처절한 기원을 토대로 세워진 것으로 추찰했다. 당(唐)의 안동도호부 철수로 신라는 발해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삼한의 패권을 놓고 새롭게 경쟁 갈등하는 형국에 처하게 되는데, 고구려의 승계자임을 자임하는 발해를 압박하고 견제하고자 설인귀를 감악산의 산신으로 봉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를 맹공해 멸망케한 설인귀의 용맹한 기운을 빌어서 발해의 남하를 막고 신라의 강성을 보다 굳건히 하려는 당시의 사회적 정서가 신앙으로 구체화한 모형이라는 결론이다. 또한 당시 급박한 동북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기인, 확산된 진호적(鎭護的) 의미의 군신, 영웅 출현을 회귀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즉 전후 죽은 자들을 위한 성대한 호국진혼제사(해원위령굿)를 국가가 관장해 봉행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훗날 감악산의 군신 및 무속신앙으로 정착됐고, 또 이를 배경으로 감악산 일대에서는 신라이래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송산의 무속신앙이 성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라의 紺嶽山小祀(호국진혼 산천제익)에서 감악산을 영험한 산악으로 여기는 풍토가 민간에까

지 확산된 결과로 본다. 그래서 이후에 자연스럽게 감악산이 무속신앙의 메카로 왕실 및 민간에 인식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산신숭배 신앙은 신라이후 용맹한 무장의 위력을 빌어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군신신앙으로 형태가 변모해서 더욱 성행하는데 이는 설인귀 사묘와 김유신 사묘가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군신신앙은 훗날 부락 공동체의 수호자인 洞神이 됐으며 그러다 산악신숭배 신앙은 그 의미와 모형이 더욱 축소 왜곡돼 개인의 發福만을 기원하는 저급한 무속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계사의 고석비 또한 이런 신앙적 환경을 승계해 감악산이 조선 왕실의 신령한 기도처로 활용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신앙유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정우영씨는 “운계사의 古石碑는 감악산 정상의 설인귀 고석비를 승계한 산신신앙이 왕실기도처와 원찰로 그 형태가 변모 습합되면서 만들어진 신앙유적으로 이해해야한다”며 “운계사 고석비와 감악산 정상의 고석비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 형태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자료이니 보존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 호소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㉞

인터뷰 사료부문 최우수자 김강산 씨

陟州東海碑文과 眉叟 逐麋文의 考察

‘수해’ ‘돌림병’ 막기 위해 허목이 지은 축문

김강산(50)씨는 얼마전 삼척문화원으로 부터 이상한 글이 복사된 종이 한 장을 건네 받았다.

자세히 읽어보니 ‘眉叟 逐麋文(미수 축려문)’이란 글이었다. 眉叟. 그렇다면 眉叟 許穆이 지은 글인 것이다.

동해시 송정동에 사는 정용하라는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옛 문적들 속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미수 축려문’은 삼척지방에 큰 영향을 끼친 허목 선생이 지은 글이라는 점에서 뜻 있는 향토사가들에게는 큰 관심사다.

미수 허목은 신묘한 문체로 東海嶺을 짓고 척주 동해비를 세워 潮水를 물리친 일로 유명하다.

그 신비한 기적에 매료된 삼척지방 사람들은 비문을 탁본해다가 집안에 걸어 놓았고 조수가 물러가듯 재앙이 물러가길 비는 풍습이 수 백년간 이어져왔다.

그러니 삼척지방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많은 府使들 가운데 미수 허목이 단연 뛰어나게 각인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척지방 사람들의 정서와 맞물려 이번엔 발견된 것이 ‘미수 축려문’이니 이것도 필시 허목이 지었을 것이라는 것이 世論이었다.

김강산 씨는 이 미수 축려문이 허목의 所作인지의 여부와 축려문을 주해해 그 속뜻을 밝혀 보고자 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척주동해비문과의 연관성, 나아가 두 문장의 성격과 두 문장에서 보여지는 시대적 정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陟州東海碑文’과 ‘眉叟 逐麋文’. 두 자료의 文體, 내용, 성격을 삼척지역의 지리적 상황과 기후, 재앙 조사를 통해 해석한 연구 결과 김강산 씨는 척주동해비는 처



음 허목이 정라도(汀羅島)에 세웠는데 20년 뒤 지진과 해일에 의해 격침된 것을 48년 뒤 부사 홍만기가 다시 제작해 竹串島(六香山)에 세웠다는 것을 알아냈다.

아울러 당쟁 때 반대당 사람들이 파괴한 것이 아니며, 척주동해비문은 당시 해일로 인한 수해 때문에 동해신에게 제사하면서 고하던 축문이었는데 나중에 비문으로 뒀음을

알았다.

따라서 미수 축려문은 허목이 당시 수해로 인해 돌림병이 확산되자 지은 것이 확실함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척주동해비를 세워도 해악인 해일, 파장은 밀려오고, 동해안은 애초에 조석이 없으니 퇴조비 운운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척주동해비문과 미수 축려문은 다같이 4언1구의 48구 192자로 되어 있음을 밝혔다.

김강산 씨는 “척주동해비는 허목 재임시에 발생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백성들을 위무하고 불가항력적 천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三陟府民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와 성난 파도를 달래려는 뜻에서 동해신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동해신에게 고하는 축문을 비문으로 세운 것”이라며 “미수 축려문도 이와같은 재해 뒤에 오는 돌림병을 막고자 지은 것”이라고 자신의 논문결과를 발표해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인터뷰 논문부문 장려상 수상한 일본인 곤노게이꼬 씨

강강술래와 일본 전통 가무와의 비교 고찰

“강강술래의 ‘승화력’에 매료”

이번 ‘제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시선을 끄는 인물이 있다. 장려상(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을 받은 곤노게이꼬(41)씨. 김지영(9)과 소영(7), 두 딸의 손을 잡고 시상식장에 나타난 그녀는 일본인치고는 꽤 미인이었다. 곤노게이꼬 씨는 지난 89년 한국으로 건너와 전남 광주에 정착 할 때만해도 한국어 한마디 못했다. 그러던 그녀가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한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을 무렵, 부산에 불일이 있어 갔을 때 머리를 곱게 탄 처녀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돌면서 강강술래 춤을 돌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한다.

“뛰라 표현해야할까요?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스러웠습니다. 일본에는 여자들만 추는 춤이 없거든요” 강강술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하는 곤노게이꼬 씨. 그녀가 받은 문화적 충격이 꽤 컸던 듯 오랫동안 그 춤사위

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 경험을 계기로 ‘강강술래’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강강술래’와 ‘일본 전통 가무’가 비교할 만한 유사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물론 춤의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한국의 ‘강강술래’와 일본의 고대가무 ‘우타가키’, ‘소우후렌’은 ‘노래를 부르며 추는 춤’이고 ‘농경의례’라는 점에서 그 기능과 형태가 비교꺼리가 된다”며 “한국문화의 주체성과 세계성을 규명하고 싶어서 이번 논문을 썼다”고 말한다. 그녀는 강강술래를 ‘승화력’이란 한 단어로 정의 내린다.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어 승화시키면서 하나의 춤으로 표현한 예술이라는 것.

곤노게이꼬 씨는 “자신과 같은 외국사람이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극명하게 알릴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아름답고 가치있는 한국문화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을 이번 향토문화발표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 같아 너무 고맙고 기쁘기 그지없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논문수상자들과
참석한
내외귀빈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 방안' 학술회의 개최 올해 승정원일기 原文 1/15 인터넷에 뜬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성무)는 지난해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31회 한국사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조선왕조실록 CD롬'으로 널리 알려진 동방미디어(주)가 후원한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해 9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승정원일기에 대한 소개와 디지털화 과정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출납기관인 승정원을 거쳐간 문서와 국왕의

행적을 일기체 형식으로 적어놓은 역사서로 우리 나라 대표적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의 4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자리에서 이성무 위원장은 "이 일을 하려면 예산과 전산기술·전문인력 등 3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고 제한 후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5억원 정도 늘어났으며 앞으로 연 평균 15억원씩 확보해 10년간 총 1백5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승정원일기의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정만조 국민대 교수(승정원일기의 작성과 사료적 가치), 김종수 군산대 교수(승정원일기

편찬체제와 타 문헌과의 비교 검토), 서정문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실장(승정원일기 국역의 현황과 과제), 신명호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승정원일기 정보화 사업 현황과 과제), 박한남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동방미디어 전산화팀(승정원일기 웹화면 프리젠테이션)등이 각각 주제발표했다.

지난해 디지털화한 승정원일기의 1/15 가량의 분량은 올해 1~2월경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www.nhcc.go.kr)을 통해 서비스된다. 다음은 학술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항목별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록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 조선시대 대표적 연대기 역사서 중의 하나. 왕명출납을 맡고 있던 승정원이란 관청의 정7품 주서(注書)가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와 임금 수행중의 언동(言動)을 빠뜨리지 않고 비디오패카로 찍어놓은듯 생생하게 수록해 놓은 일종의 일기체 기록물이다. 국보 제 303호.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됐다.

■ 약 2억 4천 만자...조선왕조실록은 4천 8백만자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원전 승정원일기는 3천2백45책으로 보통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초서체로 쓰여져 있다. 약 2억4천1백25만자.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라 일컬어지는 조선왕조실록이 약 4천7백68만자이고 중국 명나라의 ‘명성록’이 총 1천6백만자인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방대한 분량이다. 승정원일기는 대체로 1개월에 1책이 묶여져 나왔다고 볼 때 조선시대에 최소한 6천3백여책(5백10년간, 3년마다 윤달)이 작성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임진왜란으로 조선전기 부분 대다수가 소실됐다. 특히, 영조 20년 승정원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선조에서 광해군까지는 아예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복구를 못했고 인조에서 경종까지 99년간은 1천7백96책이던 것을 5백48책으로 보수했다. 이에따라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보존되고 있는 승정원일기는 인조(仁祖) 원년(1623) 음력 3월12일에서 융희(隆熙)

4년(1910) 양력 8월 29일까지 288년간의 일기 3천2백45책만 전해진다. 이를 국사편찬위원회가 60년부터 77년까지 원로 서예가 4백50명을 동원해 1백41책의 해서체로 탈초하는데 성공했다.

■ 날짜 · 상소 · 능행 · 친국 등 정무 · 정사들어있어

한마디로 △날자와 간지 · 날씨를 비롯 △각방승지(各房承旨)의 좌목(座目)과 주서(注書)의 성명 △각조(各曹)나 각사(各司)에서 임금에게 올린 계사(啓辭)와 그에 대한 임금의 전교(傳敎) △관인(官人)이나 유생(儒生)의 상차(上筭) · 상소(上疏)와 그에 대한 비답(批答) △이병조(吏兵曹)의 정주(政注) △임금의 거동과 관련한 일체의 행사...성균관의 알성(謁聖) · 제의(祭儀) · 능행(陵幸) · 온행(溫幸) · 열무(閱武) · 친국(親覲) · 중국 사신 접대 행차 · 사냥 · 대민하순(對民下詢) 등 △신료인접(臣僚引接)관계...경연(經筵) · 약방(藥房) · 차대(次對) · 청대(淸對) · 입대(入對) · 상침(常參) · 윤대(輪對) · 유생전강(儒生殿講) 등의 인견입시(引見入侍)의 전 과정과 수작(酬酢) 내용 △기타 임금에게 보고되



(사진출처: 문화재청)

는 사항등 국정과 관련된 모든 정무와 정사에 관한 사항이 수록돼 있다고 할 수 있다.

■ 매일의 政事를 1개월 단위로 1~2책 묶어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의 주서(注書)가 매일의 정사(政事)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이것을 정리해 1개월 단위로 1~2책을 묶어 다음달 20일 전에 제출하면 이것을 승지들이 다시 고열(考閱)한 후 말일까지 임금

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주서들이 임금과 신료들간의 대화를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만이 아니었다. 임금에게 아뢰는 신료들의 목소리의 크고 작음이 다르며 또 이들이 부복해 있는 위치에 따라 주서와의 거리가 달라서 주사들이 받아적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종종 31년 좌의정 김안로는 큰소리로 분명히 아뢰게 하되 지나치게 부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임금과 신료간의 대화가 너무 빠르거나 한꺼번에 여러명이 복잡하게 말을 하기도 해 이들이 묻고 답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록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처럼 연설(筵說)이나 수작(酬酢)을 받아 적기가 힘들 경우에 주서들은 초책(草冊)이라는 일종의 속기록장부겸 비망록을 지참했다가 어느 때라도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필체로 재빨리 기록하거나 말이 길어 미처 다 받아 적기가 어려울 때는 대강만 메모해 놓은 뒤 나중에 기억을 되살리며 다른 사관의 초책과 대비해 보완·수정했다. 그런 다음 이를 승정원일기에 전사(轉寫)했다.

■ 조선왕조실록이 ‘녹음기’라면 승정원 일기는 ‘녹화기’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편찬물이 아니라 현장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승정원 일기는 왕명 출납을 기록한 1차 사료이고 조선왕조실록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2차 사료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조선왕조실록이 상소문의 일부만을 발췌해 기록한 것이라면 승정원일기는 원문

그대로를 전제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승정원 일기는 당시 정치상황에 따른 영향과 편찬자의 사관(史觀)이 배재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승정원일기는 크게 현장성·객관성·신빙성·다큐멘터리적 기록성 등 4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이는 조선왕조실록이 녹음기라면 승정원일기는 녹화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국가 경영 내지 국정운영을 위한 생생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 ‘천둥이 칠때 어좌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도 참고

당대에서는 국정 운영을 위한 ‘참고서’로 활용됐다. 이는 종종이 일본으로 가는 노정과 소요 일자를 ‘반드시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니 고찰하여 아뢰라’고 지시를 내린데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승정원일기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곤 했다. 몇가지 사례로 △대사례(大射禮)에서의 음식과 술잔 수효는 어떠한지 △중전의 간택은 언제 했는지 △종묘에 치제(致祭)할때 전(箋)은 어떻게 올리는지 △여역(癘疫)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했는지? △천둥이 칠 때 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예에 맞는지 △구황(救荒)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국상(國喪)이 있을 때 선대왕은 언제부터 육선(肉膳)을 들었는지 △벼락이 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리(詔使)를 접견할 때 상복의 색깔은 어떠했는지등을 들 수 있다.

■임금도 열람·洗草가능… 단 ‘편찬자’ 주관 없어

임금은 승정원일기를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한 예로 영조는 사도세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기록을 ‘승정원일기’에서 완전히 세초(洗草)하도록 명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이 임금도 열람할 수 없는 비사(秘史)였다는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처럼 승정원일기는 한 기사를 완전히 삭제하는 일이 있어 사료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처럼 ‘편찬자’의 주관에 따라 선별해 기사를 신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단 승정원일기는 영조 20년 승정원의 화재로 인해 소실된 인조에서 경종까지의 1천1백96책이 5백48책으로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개보수되었기 때문에 현장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조이후 승정원일기는 그야말로 사실성이 매우 높아 당대의 상황을 들여다보는데 더할나위 없이 좋은 사료라는 평을 얻는다.

■고·순종 일부분 국역된 상태

지금까지 고·순종 일부분만 이뤄진 상태다. 이 부분은 지난 94년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민족문화추진회가 함께 조선왕조실록을 국역하면서 시작했다. 일제에 의해 편찬된 고·순종 실록 대신에 그 기초자료인 승정원일기를 국역 대상으로 채택하면서다. 이처럼 승정원일기 국역은 조선왕조실록 국역의 마무리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 승정원일기의 국역 전체 분량은 대략 2백자 원고지 3백62만매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국역된 분량은 이중 8%도 안되는

고·순종 부분이다. 색인을 제외한 4백 13책의 조선왕조실록을 국역하는데 25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승정원 일기는 이보다 4배나 많은 1천8백책(조선왕조실록 판형과 페이지 기준)으로 지금까지 국역된 고·순종 부분 1백 50책을 제외해도 1천6백50책으로 한 세대를 넘는 작업 방대한 분량이다. 올해에는 인조편을 국역할 예정이다.

■ 10개년 사업으로 150억 들어 디지털화

지난해 초부터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성무)가 동방미디어(회장 이웅근)와 함께 승정원일기 원문(原文)을 디지털화하는데 착수했다.

이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는 만 17년에 걸쳐 서울대 규장각 소장 원전 승정원일기를 1백41책으로 탈초하는데 성공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탈초본을 10개년 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2001년 12월 현재 5억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승정원일기 8(효종8

년)~17책(숙종15년)을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했다. 전체 분량의 약 15분의 1이다. 이를위해 국사편찬위원회는 원문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표점, 기사 요약, 핵심어, 단군연호·일본연호 첨가등의 디지털화 작업을 거쳤다. 이보다 앞부분인 1(인조1년)~7책(효종7년)은 이미 공익근로요원이 투입해 완성됐으나 보완할 사항이 많아 추후 개보수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9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숙종16년)~28책(숙종46년)을 정보화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2010년까지 총 1백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까지 디지털화한 원전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1일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조선이란 나라에 새해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알 수 있다.☞

‘승정원 일기’ 디지털화 하는 이웅근 동방미디어 회장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의 4배 분량

한국문화의 세계화 측면에서 볼때 사료적·정보화 가치 더 커

조선 인조부터 순조까지 왕을 중심으로한 국정 내용을 담고 있는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비교해 여러모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그 분량부터가 조선왕조의 4배에 해당하는 3천2백45책이고 글자 수가 무려 2억5천만자에 달한다. 또한 당대 왕이 돌아가신 후 실록청을 세워 정리하는 실록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관에 의해 취사선택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승정원일기는 이른

바 대통령 비서실의 왕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담고 있다. 조선왕조실록보다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 가치가 몇배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는 올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짓는 조선왕조실록 원문 정보화와 함께 한국문화의 세계화라는 점으로 볼 때 큰 의미를 지닌다.

◁이웅근 동방미디어 회장



김종문 주일 한국문화원장

한국문화원 · 지방문화원 협력관계 “절실”

박 계 현 기자 fire@kccf.or.kr

기종문 주일 한국문화원 원장(53). 김원장은 지난 99년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일본에 알리고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한 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11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2차 일본공민관 연수(2001. 11.20~24) 때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문화원 관계자들은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김종문 원장과 환담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들에게 김종문 원장을 소개받고 월간 우리문화는 김원장과 이메일(hime1006@hanmail.net) 인터뷰를 했다.

△주일 한국문화원은 언제 설치됐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일 한국문화원은 1979년 5월 10일 東京 히가시이케부쿠로(東池袋)의 전샤인60에서 개원했습니다. 현재 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의 소개와 한일간의 문화교류는 물론 체육, 청소년, 관광에 관한 교류도 담당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화관광부가 수행하고 있는 일을 한국문화원이 일본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일 한국문화원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사업은 무엇입니까? 또 보람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첫째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문화산업의 일본진출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저희 문화원에서는 2002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는 ‘한국문화 · 체육 · 관광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행사에 문화청의 사사키 마사미네(佐佐木 正峰) 장관, 국토교통성의 오바타 마사토(小幡 政人) 사무차관, 궁내청(宮内廳)의 하야시다 히데키(林

田 英樹) 황태자 시종장(전 문화청장관), 일본월드컵조직위원회의 나스 쇼(那須 翔) 회장, 나가노마 겐(長沼 健) 부회장, 엔도 야스히코(遠藤 安彦) 사무총장, 일본축구협회의 오카노 준이치로(岡野俊一郎) 회장 등 2백여명의 문화 · 체육 · 관광계 일본 저명인사들이 참석해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지원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이제 한국문화원이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김종문 주일 한국문화원장



△2002월드컵대회의 한일공동개최를 기념하고 대회의 성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의 창작오페라 '황진이' 공연행사 때 천황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黃眞伊’ 공연(東京 신국립극장)에 일본의 천황과 황후, 그리고 황족 다카마도노미야(高円宮) 부부가 참관한 것은 일본에서 한국문화의 소개와 한일 간의 문화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천황과 황후가 그동안 한국에 관한 행사에 참관하신 일은 있으나 한국 측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의 참관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천황과 황후를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천황과 황후께서는 오페라의 한 장면 한 장면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관람했고 오페라가 끝난 후에는 출연진 대표들을 접견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천황과 황후의 한국오페라 참관에 대해 저는 주최자를 대표해 4월 23일 일본황궁(北溜宮殿)에 들어가 답례기장(御礼記帳)을 했습니다.

△원사 신축은 어느 정도 추진 됐습니까?

현재 저희 한국문화원은 1995년부터 재일민단중앙회관 부속아파트건물에 세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건축한지가 25년 이상이 된데다 아파트를 개조했기 때문에 천장이 낮고 구조도 문화원이 활동하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따라 문화원청사의 신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문화원은 곧 한국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화원에 들어오면 ‘아 여기가 한국이구나’ 하는 한국 풍의 문화원을 신축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하고 있는 2002월드컵의 여러 행사에 한국문화원이 정부를 대표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원장님의 노고가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한국문화원은 월드컵을 성공시키기 위한 많은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성모’ 일본콘서트, 창작오페라 ‘황진이’ 공연, 한국최신영화 특별감상주간, ‘조선왕조의 미’ 전시회, ‘백진우’ 피아노 연주회, 제14회 東京국제영화제 계기 ‘한국영화주간’, 한국 문화·체육·관광의 밤 등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김홍수·平山 郁夫’ 전시회(1.8~2.11), ‘조선왕조의 미’ 전시회(2.19~3.31 히로시마, 4.9~5.19 기후), 뮤지컬 ‘고려팔만대장경’ 공연(3.29~31), 한일 궁중음악교류연주회(5.6~14), 전통창극 ‘현해탄에 핀 매화’ 공연(6.21~23), 한일 여성미술 교류전(8.1~9.16) 등을 계획하고 있고 국립발레단의 일본순회공연(4월)과 한일문화재교류전(3월~7월)을 비롯한 많은 행사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214곳에 설치돼 있는 지방문화원과의 유대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한국문화원이 앞으로 일본의

전지역을 상대로 원활한 문화교류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문화원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 문화원의 원장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한국문화원이 다소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하나마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근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00년 12월 12일 일본의 다이쇼(大正)대학으로부터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大正대학측에서는 객원연구원을 지낸 제가 “문화원장으로 부임한 후에 한일 간의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학교측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저에게는 대단히 과분한 학위입니다. 저는 이번 명예박사학위를 “앞으로 한일 간의 문화교류를 위해 더욱 진력하라”는 학교측의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중의 하나인 일본국립과학박물관의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15명중 외국인은 저 혼자입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국문화원장으로서 항상 일본문화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저에게 다소라도 일본의 문화기관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해 보라”는 일본문화계의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신 세대 할머니’ 居伯堂 정애영(63). 居伯堂은 그의 호다. 10여년동안 안양문화원 이사로 일하며 청소년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절을 가르쳐 오고 있는 그를 문화원 3층 효경당 안에서 만났다. 남색 치마에 옥색저고리 그리고 자주색 고름.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곳곳이 앓은 모습이 영락없는 사대부집 마나님이다. 어깨에 둘러앉아 풀어놓은 누르스름한 솔이 멋을 더하는 듯 했다. 알고보니 자신이 손수 난을 치고 양파겉질로 물들인 것이라나다.

그는 예절뿐만 아니라 염색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다. 배운지는 불과 2년 남짓.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강좌를 통해서다. 그러나 여기에 관심을 가진지는 꽤 오래다. 20년전 아우라지 마을에 놀러갔을 때도 이웃마을과 연결이 수월치 않았던 외지에서 어떻게 염색한 옷을 입을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참지 못해 현지 주민들에게 물어다니곤 했다. 또 몇해전에는 염색을 비롯한 다도·예절등 우리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양에 만들고 싶어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박물관 강좌를 들을 때에도 그는 ‘악바리 할머니 수강생’으로 통했다. 아파트 베란다와 화장실이 그의 작업실. 가족 모두 잠이 든 밤에도 혼자 불을 흰히 밝힌 채 염색하는라 동이 터 오는 줄 몰랐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스승이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연염색연구가인 이병찬씨가 귀찮아 할 정도로 전화를 해댔다. 그런가 하면 환갑을 넘긴 나이도 무색할 만큼 충남 서천 모시축제등 염색과 관련된다 싶으면 축제

천연염색으로 머플러·솔·바늘꽃이 만드는 居伯堂 정애영

“자연의 빛깔을 뽑아 옷감에 물들이면...”

나 전시회등 전국 어디든 안가리고 찾아 다녔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수강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연속으로 천연염색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는 서울 인사동에서 첫 동아리 전시회를 연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안양 평촌전시관에서 두번째 전시회를 가졌다.

“우리 조상들 멋진 분이예요”

‘우리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애정과 찬사가 봇물터진다.

“우리 조상들은 멋진 분이예요. 몸에 맞게 옷을 해입고 선이나 색을 고려한 것만 봐도 알잡아요.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가난한 물러왔다고 말하곤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면 화가 나요”

염색을 하며 새롭게 발견한 게 신비로운 자연의 빛깔이다. 염료는 동물·식물·광물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무엇보다 염료는 선인장 벌레든 버섯균이든, 썩이든 치자든, 돌가루이든 황토이든 모두가 자연 그대로라는데 더할 나위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론 아름다움이지만 안으론 순전히 노동이다. 사람 키 몇 배나 되는 섬유를 물들이고 빠는 작업을 여러번 반복해야 하는 고된 과정이다. 기본적인 염색인 경우에도 △염색 △수세 △매염(15분) △수세 △본염색(30분) △수세 △매염(15분) △수세 △건조등의 순서를 거쳐야 한다. 한가지 염료에서 다른 색상을 얻는 철매염의 경우에는 비누세척을 해야하는등 이보다 염색과정이 더 복잡다단하다. 게다가 무늬라도 정성껏 들일라 치면 바늘질을 하거나 주름을 잡아주는 수고도 만만치 않다. 섬유도 궁

居伯堂 문화상품들

▷ 천연 염색 후 건조과정



합이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뉘는데 어떤 섬유인가에 따라 염색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섬유인 모시는 감물이나 먹물·홍화·발효쪽을 들이는데 잘 쓰인다. 동물성 섬유인 명주는 구김없고 촉감이 좋은 게 특징. 일반적으로 염색을 말할 때 ‘쪽’을 예로 드는데 정씨는 ‘락’을 좋아한다. ‘락’은 선인장에 기생하는 코치닐이란 벌레에서 추출한 색소로 실크에 물들이면 붉은빛이 감도는 게 세련된 느낌을 주고도 남는다.

먹물 툴 치마를 아예 먹물 염색하기도

그는 어쩌면 원래부터 ‘끼’가 많았는지 모른다. 한번은 사군자를 배우다 그만 치맛자락에 먹물이 튀었다고 한다. 다른 여인네라면 그 묻은 먹물을 필로 지울까 호들갑을 떨었을텐데 정씨는 나머지 부분에도 아예 먹물을 들여 입고 다녔다. 수목화처럼 곱게 농담이 생긴 치마는 아름다웠다. 또 이런 저런 모임에서 다과회를 할 일이 있으면 붉게 물

든 단풍잎을 따다 씻고 말린 뒤 접시에 한잎 깔고 그 위에 떡을 올리는 멋을 좋아한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천연염색 머플러나 솔·바늘꽃이를 우리문화를 애호하는 어른들에게 선물 하고 싶다고 말한다.

특히나 전통예절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씨는 명크코트 입는 것을 ‘창피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멋스러운 옷인 한복이 있는데 왜 굳이 비싼 돈 들어가며 서양옷을 입느냐는 투다.

물론 스커트도 즐겨 입는 ‘멋쟁이’이지만 그래도 한복 입는 날이 많다. 한복을 입고 다니면 언제라도 예절을 가르칠 수 있어 여러모로 좋다고 말한다. 거기에 하얀 고무신까지.

“우리 고무신 멋지지 않아요? 특히나 하얀 코가 주는 매력말이에요. 값도 3천 원밖에 안하구요”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자 하얀 첫 눈이 폴폴 내렸다. 새댁같은 할머니와 맞는 첫눈. 올해 첫눈은 다른 때와 달랐다. 

인간세계를 지배하는 神들

‘三殺方’ ‘大將軍方’ ‘三災’ 아시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공간에는 무한한 신들이 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음도(陰道)에서 인간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제도하기도 해 또 하나의 이상적 세계를 이룬다. 다만 그러한 세계를 보통 사람으로는 알수가 없고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무척 아쉽다.

‘삼살’(三殺)이란 것은 흉신(凶神)의 하나다. 특히 이 살은 세 가지의 나쁜 흉신이 모여져 또 다른 막강한 신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혼력이 굉장하다.

다시 말하면 뜻밖에 겁(怯)나는 사고를 의미한 겁살(怯殺), 재앙만 일으킨다는 재살(災殺), 그리고 천재(天災)를 안겨준다는 천살(天殺)등이 집합일위(集合—爲)해 인간세상에 내려와 살고 있는데 동서남북을 각 일년씩 머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악신을 잘못 건드리면 사망·질병·손해·기타의 불상사를 자초하게 된다. 특히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 개업, 장사(葬事)등을 할 경우 이 무서운 삼살방은 피하는게 상책이다.

삼살방(三殺方)을 피하는 방법은 조건표대로 활용하면 된다. 집을 짓는다는가 묘자리를 옮긴다는가, 수리를 한다는가 하고나서 간혹, 갑자기 사람이 죽거나, 질병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개가 삼살방은 건드렸기(침범) 때문이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악살인가를 알 수 있다.

이밖에 대장군방(大將軍方)도 삼살방과 흡사하나 효력면은 다소 약하고 삼년 동안 한곳에 머무는 것이 특징이다.

이 두가지 살이 똑같은 방위에 같이 있을 때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 삼재(三災)는 인간 누구에게나 12년마다 필연적으로 돌아오는 악신(惡神)이다. 三災란 뜻은 첫째,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재(喪災), 둘째, 병고로 인해 갖은 고통을 주는 병재(病災), 세째, 물질적인 손실을 의미한 손재(損災)가 있다.

이밖에 넓은 의미에서 천재·지재·인재(天災·地災·人災) 즉 자연에서 온 재앙과 인간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인재를 말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전자인 喪·病·損·災를 우선으로 취급하는게 합리적이다.

본시 역리학상으로 보면 인간을 동서남북으로 상징하여 네가지로 홍망성쇠가 가능하도록 4단계로 묶어 놓았다.

다시 말하면 범·말·개(寅·午·戌), 뱀·닭·소(巳·酉·丑), 원숭이·쥐·용(申·子·辰), 돼지·토끼·양(亥·卯·未)등으로 구분해 대체적으로 동일하면서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이치가 변화없이 발전이 없다는 당연한 귀결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열두 띠 모두가 단 한번에 변한다면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게 됨으



이 원 철
청양문화원 부원장

三殺方

△ 원숭이 · 쥐 · 용(申 · 子 · 辰)의 해에는, 정남쪽에 삼살이 되고
△ 범 · 말 · 개(寅 · 午 · 戌)의 해에는 정북쪽
△ 뱀 · 닭 · 소(巳 · 酉 · 丑)의 해에는 정동쪽
△ 돼지 · 토끼 · 양(亥 · 卯 · 未)의 해에는 정서쪽에 살이 든다

大將軍方

△ 범 · 토끼 · 용(寅 · 卯 · 辰)의 해에는, 정북쪽에 대장군이 3년간 머문다.
△ 뱀 · 말 · 양(巳 · 午 · 未)의 해에는 정동쪽에
△ 원숭이 · 닭 · 개(申 · 酉 · 戌)의 해에는 정남쪽에
△ 돼지 · 쥐 · 소(亥 · 子 · 丑)해에는 정서쪽에 대장군이 3년간 머문다.

三災

△ 범 · 토끼 · 용(寅 · 卯 · 辰)의 해 : 원숭이 · 쥐 · 용띠는 삼재가 3년간 있다.
△ 뱀 · 말 · 양(巳 · 午 · 未)의 해 : 돼지 · 토끼 · 양띠는 삼재가 3년간 있다.
△ 원숭이 · 닭 · 개(申 · 酉 · 戌)의 해 : 범 · 말 · 개띠는 삼재가 3년간 있다.
△ 돼지 · 쥐 · 소(亥 · 子 · 丑)의 해 : 뱀 · 닭 · 소띠는 삼재가 3년간 있다.

로 열두 띠중에서 한 묶음인 세띠가 변하게 된다.

삼재가 들은 사람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변화다. 그것은 역리학상 가장 변화가 있고 활동적인 것이 역마성(驛馬星)이다. 그래서 역마가 사주팔자에 있게되면 일생동안 변화가 무쌍하다.

헌데 이 역마를 빨리 가자고 고삐를 풀고 채찍질하는 것이 바로 '삼재'다. 말하자면 뛰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묶여있던 야생마의 고삐를 풀어놓는 셈이다. 그러니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며, 재물을 날려버리기도 한다.

즉 이 三災가 들면 대운(大運)과 세

운(歲運)이 길운일 때는 길(吉)하지만 대운, 세운이 흉(凶)할 때는 흉삼재라 하여 형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흉함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흉성(凶星)작용은 관재구설, 패재(敗財), 이별, 조상(吊喪), 병고(病苦), 파산, 사고(事故)등의 각각의 형상이 이뤄진다.☞

삼재는 인간 누구에게나
12년마다 필연적으로 돌아오는
악신(惡神)이다.

三災란 뜻은
첫째,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재(喪災)
둘째, 병고로 인해 갖은
고통을 주는 병재(病災)
세째, 물질적인 손실을 의미한
손재(損災)가 있다.

삼재가 들은 사람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변화다.
그것은 역리학상 가장 변화가 있고
활동적인 것이 역마성(驛馬星)이다.
그래서 역마가 사주팔자에 있게되면
일생동안 변화가 무쌍하다.

三災가 들면
대운(大運)과 세운(歲運)이
길운일 때는
길(吉)하지만 대운,
세운이 흉(凶)할 때는
흉삼재라 하여
형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흉함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2001, 지역문화의 해’ 백화제방 및 폐막식

지역문화의 해,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 계 현 기자 fire@kccf.or.kr

지역문화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작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2001, 지역문화의 해’ 새출발 다짐대회 행사가 거행됐다.

문화관광부는 작년 한 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정해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각 지역의 문화전통을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방침 아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한)가 결성됐고 추진위원은 ‘지역문화 컨설팅사업’,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등

의 10대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해 왔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폐막식 행사는 “다가오는 문화의 시대는 지역문화로부터 시작된다”는 모토로 시작된 지역문화의 해를 마감, 결산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20일 오전 11시 개막식에 이어 오후 1시부터 6시간 동안 6개 분과 토론장에서 ‘2001년 지역문화의 해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작년 1월 ‘백화쟁명’에 이어 1년을 마무리하며 ‘백화제

방(百花齊放)’이란 부제아래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현안과 문제점보다는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보자는 취지였고 문화예술관계자, 공무원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개 분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주제로 민간 발제자와 각도의 공무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1일 오전에는 분과별 의견을 종합해 올림픽아홀에서 토론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 1시부터는 공식행사인 ‘새 출발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들이 대토론회의 분과별 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다집대회' 행사가 있었다. 공식행사는 영상기록 '2001, 지역문화의 해를 지나오며' 상영, 개회 및 국민의례, 이중한 추진위원장의 개회사, '지역문화의 해' 사업추진 경과보고, 문화관광부관계자의 치사, 시상식, 지역문화 활동사례 격려지원, '지역문화의 시대, 새로운 출발' 선언문낭독, 폐회선언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6개 분과의 토론 내용.

지역문화프로그램의 전문가 양성해야

제1분과는 안진수위원과 정강환위원의 공동 사회로 '지역문화프로그램'이란 주제아래 민간발제자 고숙희, 고승하, 박의진, 김기봉, 김문란, 김정희, 김현구, 김호균, 송홍권, 이각규, 이상휘, 이인권, 이인숙, 이흥우, 임정아, 임진택, 정갑영, 최정완, 최해걸 씨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지역문화프로그램에 관한 한 첫째, 전문가 양성과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주민참여가 관건이다. 셋째, 독특성과 차별성,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공동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감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여섯째, 관광과 연계해 자주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1분과의 '지역문화프로그램'에 관한 토론 모습

폐교 등 소규모 전문공간 활용해야

제2분과는 이원태위원의 사회로 '지역문화공간'이란 주제아래 민간발제자 강명보, 김규원, 김성봉, 김종우, 김지원, 김학실, 김희규, 라도삼, 박대현, 박은실, 박찬수, 오태근, 최재우, 황정용 씨 등이 토론했다. 이들은 "지역문화공간의 대형화는 지역민의 정서와 맞지 않으니 폐교를 활용하는 등 소규모 전문공간을 조성할 것,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길 것, 공무원의 순환보직제(2년에 한번씩은 담당공무원이 바뀔)로 전문화된 인력이 없어서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생각해볼 것, 지역민의 정서와 수준이 제고된 행사를 문화공간 내에서 개최할 것, 운영비가 부담돼 어려움이 많으니 재정문제에 관해 담당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2001년의 '지역문화의 해'가 끝나더라도 정책국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런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2분과의 '지역문화공간'에 관한 토론 모습

문화행정직 공무원을 따로 뉘야

제3분과는 강준혁위원의 사회로 '지역문화인력'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동영, 김보성, 김성식, 김은정, 문윤걸, 백옥선, 엄상빈, 이인수, 이종

진, 이춘아, 이훈상, 임승빈, 조정만, 조은아, 최협, 최근식, 하영일 씨 등 발제자들은 한정된 전문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현장력이 부족해 활용할 수가 없으니 민간네트워크, 재교육프로그램, 처우문제를 개선하고 지역활동가에게 기회를 줄 것, 인력에 관한 한 지금 당장은 질보다 양이 문제니 행정공무원의 순환보직제보다는 전문적인 문화행정직을 신설할 것, 문화직 공무원을 따로 두고 그들이 자리를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개선할 것, 지역정보와 인력을 꿰뚫을 수 있도록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제3분과의 '지역문화인력'에 관한 토론 모습

오광대 문화관광 조성사업 눈길 끌어

제4분과는 이혜경위원의 사회로 '지역주민참여'에 관해 토론했다. 김봉준, 김상철, 손정태, 신길수, 엄홍용, 우수홍, 이강렬, 이선우, 이윤선, 임정희, 최호준, 한림화 씨 등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얘기하는 한 '축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으니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를 생각할 것, 지역주민의 생각과 느낌을 반영해 이들이 축제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 민 주도 축제 땀

재정 때문에 경쟁적으로 시장 모시기, 관 주도 땀 관료들의 의전문제를 더 중시하는 등의 폐해가 뒤따르게 마련인데 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민의 역할을 전반에 부각시킬 것, 축제가 관광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획일적이고 천박해질 우려가 있으니 지역민 자체의 삶을 중시할 것, 지역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할 것, 문화감리제도를 도입할 것”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경남 합천군 덕곡면(면장 최호준)의 ‘오광대 문화관광 조성사업’을 성공추진사례로 꼽았다.



제4분과의 ‘지역문화주민 참여’에 관한 토론 모습

단순 복원보다 활용 가능한 원형 보존을

제5분과는 강신표위원의 사회로 ‘지역문화유산’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강산, 김한창, 김홍남, 박문규, 배용호, 염상균, 이해준, 임선빈, 장정룡, 전보삼, 정기철, 조규돈, 조남식, 조달호, 황종욱 등의 발제자들은 “삶의 의미있는 메시지만이 지역문화유산이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지역개발’이 가능하다. 문화도 경제니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살아있는 민속문화전통의 실태를 파악하고 차별화전략을 세워야 한다. 문

화해설가 제도를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 민속환경, 정신세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더 중요하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활용이 가능해야 하니 원형 복원보다는 활용 가능한 원형을 보존하자. 지역문화에 관심있는 우리 스스로가 문화유산이니 지속적 관심을 갖자”고 제안했다. 또 “이런 자리에 공무원 외 정치인들도 참여해 예산을 책정하는 그들이 인식을 새롭게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5분과의 ‘지역문화유산’에 관한 토론 모습

문화마인드가 강화된 예산집행 필요

제6분과는 박인배위원의 사회로 ‘지역문화재원’에 관해 의견을 나눴는데 박종관, 손경년, 양경석, 윤수경, 이현식, 이흥재, 임호, 장일영, 지금중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정문제는 문화계의 큰 홍역이다. 지역문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는데 더해 진흥기금, 발전기금, 기금출연 등 수익기금도 감소하고 지원금도 30~40% 줄고 있으니 재정문제를 해결할 장기적 해결방법이 요구된다.

전체예산의 균형도 ‘부익부 빈익빈’이라 할만큼 편중적이니 배분에 있어 합리성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재원확보를 요구해야 한다. 문화마인드가

강화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6분과의 ‘지역문화재원’에 관한 토론 모습

지역문화의 해, 우리는 계속 추진할 것

분과별 토론은 ‘지역문화의 해’라 정한 지난 한해를 보내며 민간인들과 공무원들이 지역문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점들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계기가 됐다. 수많은 의견과 문제점, 대안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 중에서도 “지역문화에 관련한 전문인력의 부족,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제 문제,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경영상의 어려움과 재정확보 방안, 문화네트워크 구축”등의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또한 “지역문화의 해는 2001년 한 해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향후 몇 년은 더 지속해야 우리의 지역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행사에 모인 ‘백화제방’ 참가자 일동은 식후 행사로 마련된 2부 다과회에서 건배제의를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2001, 지역문화의 해’는 끝났어도 우리는 지역문화의 해를 계속 추진해 나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문**

정약종은 1760년 남인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1801년 신유년의 대박해 때 순교했다. 그의 네 형제 가운데 둘째 형 정약전(丁若銓)과 넷째인 동생 정약용(丁若鏞)은 정조(正祖)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젊은 인재로서 당시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정약전은 ‘차산어보(茲山魚譜)’란 최초의 어류생태서를 저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정약용은 수많은 저술을 통해 조선후기의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정약종이 세속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배경

선암 정약종(選庵 丁若鍾. 아우구스티노 : 1760~1801) : 조선후기 학자, 순교자, 한국 최초 천주교 신학자, 한국 천주교 최초의 교리서 ‘주교요지(主教要旨)’의 저자.

이 회의 회장으로로서 열심히 활동했다.

특히 정약종이 저술한 한국천주교 최초의 교리서 ‘주교요지’는 교리에 대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과 사색의 결과로 맺

어진 것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한글로 쓰여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의 지배계층인 양반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반계층 이외의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임을 말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주교요지’는 조선왕조의 역사상 민중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랜 박해시기에 깊은 산골짜기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던 신자들이 공통된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교요지’가 공동의 교

신유박해 순교자 ‘정약종’

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형제들은 당시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던 천주교에 빠지게 되면서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시련에 찬 삶을 살았다. 성리학(性理學)만이 바른 학문이라 천주교리는 이단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이들은 신유박해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16년의 유배생활 끝에 그곳서 생을 마쳤으며, 정약용은 해남의 바닷가로 유배돼 18년을 살았다.

더욱이 이 두 형제와 비교해서도 정약종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는 둘째 형 정약전의 권유로 천주교에 대해 알게 되고, 1786년 아우구스티노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후 그는 자신의 형제들과는 달리 더 철저하게 천주교에 빠져들었고 1791년 제사를 거부한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그의 두 형제가 신앙의 길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후에도, 그의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1795년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입국한 뒤에는 더욱 열심히 교회를 위해 활동을 하기를 멈지 않았다. 당 주 신부는 교리를 연구하고 전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명도회(明道會)란 평신도 단체를 구성했는데, 정약종은

리서로 전파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해 추구했던 정약종 한 사람의 영성적 삶이 한국천주교회가 초기 100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



설날

양반가문 부인대신 ‘문안비’가 새해인사 다녀

설날(음력 1월 1일)은 연중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다. 조상 숭배와 효(孝)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날로 조상님과 자손이 함께 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다. 설날은 세속의 시간에서 성스러운 시간으로 옮겨가는 교체기라고 할 수 있다. 즉 평소의 이기적인 세속 생활을 떠나서 조상과 함께 하며 정신적인 유대감을 굳힐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이 바로 설날인 것이다.

박 후 식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설이란 새해의 첫머리란 뜻이고 설날은 그 중에서도 첫날이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설날의 어원에 대해 몇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설날을 ‘낫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설’에서 그 어원을 찾는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낫설음’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설날은 묵은 해에서 분리돼 새로운 해에 통합돼 가는 전이 과정으로, 아직 완전히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 설날은 ‘선날’ 즉 개시(開始)라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서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선날’이 시간이 흐르면서 연음화(連音化)돼 설날로 와전돼 불렸다.

셋째 ‘한 살 나이를 더 먹는다’에서의 ‘살’에서 왔다는 견해. 곧 ‘살’이 ‘설’

로 됐다는 것인데 그 근거로 ‘머리(豆)’가 ‘마리’에서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음을 든다.

넷째 ‘장이 선다’와 같이 쓰이는 ‘선다’의 ‘선’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설다(제대로 익지 않다)’나 ‘설어둠(해가 진 뒤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어둑어둑한 때)’에서 ‘설’이란 말이 나왔다는 견해도 있다.

다섯째, 설날을 ‘삼가다(謹慎)’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인 ‘썰다’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한다. 이는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愼日)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일이란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란 뜻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 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행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생긴 말이다.

이 ‘설’ 또는 ‘설날’을 가리키는 한자어는 무척 많다. 정초(正初), 세수(歲首), 세시(歲時), 세초(歲初), 신정, 연두(年頭), 연수(年首), 연시(年始)

등. 우리가 느끼는 설날의 정취는 그 많은 한자어보다 ‘설’이란 토박이말에서 정감을 느낀다. 이러한 한자어와 설날 아침을 뜻하는 한자어 ‘원단(元旦), 원조(元朝), 정조(正朝), 정단(正旦) 등의 말과는 구별된다.

한편 설날의 유래는 역사적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수서(隨書)’를 비롯한 중국의 사서들에는 “신라인들이 원일(元日)의 아침에 서로 하례하며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이날 일월신을 배례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제사’ 편에는 “백제 고이왕 5년(238) 정월에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으며, 책계왕 2년(287) 정월에는 시조 동명왕 사당에 배알했다”고 전한다.

이때의 정월 제사가 오늘날의 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미 이때부터 정월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설날과의 유사성을 짐작할 수 있다. 

설날의 풍속

차례

설날 아침에는 세찬(歲饌), 세주(歲酒)를 사당에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설날의 차례는 추석의 차례와 같다. 차례상을 차리는 방법은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지방이나 가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차례상 앞 첫째 줄에는 과일을 놓는다. 이때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둘째 줄에는 채(菜)나 나물류를 놓는데, 포(脯)는 왼편에, 식혜는 오른편에 놓고, 또 마른 것은 왼편에, 젓은 것은 오른편에 놓는다. 나물류인 김치·청장(淸漿)·숙채(熟菜)는 가운데에 놓는다.

세째 줄에는 탕(湯)을 놓는데, 어탕(魚湯)은 동쪽에, 육탕(肉湯)은 서쪽에, 소탕(蔬湯)은 가운데에 놓는다.

네째 줄에는 적(炙:불에 굽거나 찢 것)과 전(煎:기름에 튀긴 것)을 벌여 놓는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 이 때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한다.

다섯째 줄에는 밥과 국을 놓는데, 밥은 왼쪽에, 국은 오른쪽에, 또 떡은 오른쪽에, 면(麵)은 왼쪽에 놓는다.

문안비(問安婢)

설날에 여자는 세배를 하러 돌아다니지 않으나, 종류 이상 양반 가문의 부인들은 자기 대신 잘 차려 입은 젊은 여종을 일가친척이나 그밖의 관계 있는 집에 보내 새해 인사를 전갈(傳囑)했다. 이때 새해 인사를 다니는 계집종을 일컬어 '문안비(問安婢)'라 한다. 문안을 받는 집에서는 반드시 문안비에게 세배상을 한 상 차려 주며, 또 약간의 세뱃돈도 준다.

설그림(歲畵)

조선조 말까지, 설날 도화서(圖畵署: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서)에서 수성(壽星) 선녀와 직일신장(直日神將)을 그려서 임금에게 드리고, 또 서로 선물로 주기도 하는 풍속이 있었다. 이는 축수(祝壽)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

으로 수성이란 장수를 맡은 노인성(老人星)을 말하는 것이고, 직일신장은 그날을 담당한 신이다. 한 사람은 도끼를, 한 사람은 절월(節鉞)을 들고 황금 갑옷을 입은 두 장군의 화상(畵像)을 한 자 남짓 되게 그려서 대궐문 양쪽에 붙이는데, 이것을 '문배(門排)' 또는 '설그림'이라고 한다.

복조리

설날 이른 아침 또는 설날 그믐날 밤 자정이 지나서,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이를 엮어서 만든 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 두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을 '복조리'라 한다. 이러한 풍속은 조리가 쌀을 이는 기구이므로 그해의 행운을 조리로 일어 취한다는 뜻에서 비롯됐다. 또 설날에 1년 동안 사용할 조리를 그 수량대로 사서 방 한쪽 구석이나 대청 한 귀퉁이에 걸어 두고 하나씩 사용하면 1년 동안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민간 신앙도 있다.

야광귀 쫓기

설날 밤에 야광이라는 귀신이 인간에 들어와 사람들의 신을 신어보고 자기들의 발에 맞으면 신고 간다는 속설이 있는데 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해 운수가 나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날 밤에는 신을 방안에 들여놓는다. 야광귀를 막기 위해 대문이나 채를 걸어두는데 이것은 야광귀가 와서 채의 구멍을 세다가 신을 신어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새벽닭이 울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청참(聽讖)

새해 첫새벽에 거리로 나가 방향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소리든 짐승의 소리든 처음 들리는 그 소리로써 그해 자기의 신수(身數)를 짐치는데, 이것을 '청참(聽讖)'이라고 한다.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해는 풍년이 들고 행운이 오며, 참새 소리나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흉년이 들고 불행이 올 조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먼데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풍년도 아니고 흉년도 아닌 평년작이 들고, 행운도 불행도 없이 지낸다고 한다.

월간우리문화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일본공민관연수 참가자들의 참관기를 실는다.(편집자 주)

지난 2001년 12월호 월간 ‘우리문화’에 실린 이만희 상주문화원장님의 ‘일본 公民館 연수를 마치고’란 제하의 참관기(54~57쪽)를 읽었다. 그때 동행했던 나는 ‘이원장님께서 껍이나 자상하게 일본의 공민관을 소개하셨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일본공민관 연수에서의 느낌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민관의 역할이나 사업내용,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은 이원장님께서 상세히 소개했기에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선 사족을 붙이지 않으려 한다. 우선 일본 국민이 문화적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러한 문화시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내가 느낀대로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끊임없이 소양 쌓는 일본인들

무엇보다 내가 경이롭게 느낀 것은 일본 보통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익히기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세 곳의 공민관을 들렀을 때 공민관 소개 브리핑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보다도 이들 공민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을 하는 동아리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동아리들을 일본에서는 ‘自主그룹’이라 부른다.

미타카시의 경우 본관의 사회교육회관에 27개의 그룹이 있고, 동 사회교육관에 7개 그룹, 서 사회교육관에 13개 그룹이 있다.

또 미타카시의 예술문화협회에는 미술·공예 등 8개 부분의 예술 단체가 모여 있고, 음악을 비롯한 13개 부분의 각종 예능단체가 모여있다. 장기, 요리, 지압, 퍼스컴, 인터넷, 자녀교육, 장애인, 전각, 서도, 회화, 수공예, 악기, 합창, 민요, 가요, 외국어, 꽃꽂이, 글짓기, 편물, 양재, 무용, 각종 스포츠 등 다양한 동호인 그룹이 있다.

이러한 활동 외에 국제교류나 환경·원예, 가정경제, 방재, 교통안전, 노동, 경제, 건강, 복지, 자녀교육, 정보기기, 자연과학, 역사, 문학, 취미, 실기 등 수많은 강좌가 있다. 미타카시 말고도 다른 공민관의 프로그램이나 활동도 대동소이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획은 모두가 사람이 참여해야만 가능한 일들이다.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좌를 열고 자리를 펴놓아도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참여 인원과 강좌 개설 일시, 장소까지 명기해 둔 것을 보면 분명 그 모든 강좌나 그룹활동에 많은 사람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본의 보통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소양을 넓히며 건전한 삶을 누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 수 옥
장흥문화원장

“문화는 국력의 하나”

“언제 · 어디서나 · 누구라도” 생애학습

일본은 이러한 사회교육을 ‘생애학습’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의 ‘평생교육’과 같은 의미이다. ‘생애’나 ‘평생’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이란 뜻이니 동의어라 할 수 있고, 학습이나 교육도 배우고 익힌다는 면에서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동안 누구로부터 배움을 강요당하는 의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마치 지난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실시했던 ‘成人教育’이라는 관념 짚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우리는 ‘교육’이란 정규학교에서 받은 것만을 의미하고 대학교육까지 마치면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교육을 개인의 전체적인 인격형성의 사회적 과정이라는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 인격형성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부단히 계속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이러한 교육의 당위성은 고도화된 문명사회의 빠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절실한 것이라.

아무튼 일본사람들의 학습열기는 대단하다.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공민관은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서 설립·운영·유지된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질 것 없이 이러한 공민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탐구의 욕구가 증대될 수가 있고,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공민관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본의 공민관은 사회교육의

요람이요, 문화예술의 산실이며, 취미 오락의 광장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 고령자, 장애인은 물론 자녀교육, 심지어 외국인에게까지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이 사회교육, 특히 ‘생애학습’을 위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부과학성(우리의 교육인적자원부)에 ‘생애학습국’을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과 시설과 인력을 지원해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계획 하에 생애학습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표현대로 “언제 · 어디서나 · 누구라도” 학습의욕을 갖게 하고 참여의 열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주민들에게 동기유발해야

우리나라도 평생교육 내지 사회교육에 대한 관심과 시책을 펴고 있음을 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명칭은 다를지 몰라도 목적에서는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두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디서 하든지 일관성과 일체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지원을 효율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민의 참여를 먼저 기대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는데 실은 주민으로 하여금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교육수준으로 보더라도 동기유발을 효과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이나 교육강좌에 관심을 기

울일 것이라 믿어진다.

일본의 공민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모든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교육위원회의 사업으로 돌리기는 어렵다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원을 비롯한 문화예술진흥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 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에서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해서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인력의 저변을 다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화의 저변을 다져야 하는 것은 이것이 곧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 하고 이를 위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를 앞당기기 위한 실질적인 일에 느슨함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문화도 국력의 하나다. 선진문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국력’이라는 생각으로 투자도 해야되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계획 경제시대에 우리가 해왔던 국민운동을 문화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정부와 국민 그리고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이 힘을 합하면 일본의 문화가 결코 높아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가까운 이웃나라의 공민관은 우리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화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어떤 사명감 같은 절실함을 갖게 했다. 주마간산 격으로 돌아봤지만 일본의 공민관 연수는 뜻깊고 교육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비가 내린다.
일본 오사카 귀 무덤을 후줄근히 적시며
비가 내린다.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도요토미 시대요시의 불같은 호령아래
가슴에 예리한 창이 꽃히고, 시퍼런 칼로
난도질당하고
우레를 토한 조총의 탄환이 박히고
게다짜에 짓밟혀 귀까지 베인
朝鮮의 아들이여!
딸이여!
자박자박 돌떡을 돌리다
무자비한 왜적의 칼날에 짓밟힌 朝鮮의 希
望이여!
自尊이여!

뭉그러진 몸통의 號哭을 남긴 채
怨恨이 사무친 敵土에 묻혀
긴 세월 쌓이고 쌓인 痛恨이
비로 化해 내리는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故國에서 온 나그네 가슴을 적시는가.

四世紀 긴 세월동안
칠천 개의 귀가들은 아픈 歷史의 장을
넘기며, 넘기며
顯忠日 한나절을
목이 메어 嗚咽하는가.

- 筆者의 詩 '비가 내린다' 全文

이 줄시(拙詩)는 筆者가 4년 전 전남
교원연수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
해 오사카에 있는 귀무덤(耳塚)을
참배한 감회를 적은 詩다.

그 날은 마치 대한민국 顯忠日이라 귀
무덤에서 일행은 현충일 기념행사를 했는
데 삼천 오백의 영령들이(귀 무덤엔 칠천
개의 귀가 묻혀 있다고 함) 고국에서 온
한 핏줄을 보고 오열(嗚咽)이라도 하는 듯
밝은 햇빛을 쏟아내던 하늘이 금방 변해
눈물같은 비를 주룩주룩 뿌리고 있었다.
참배객들은 더욱 마음이 숙연해져, 일본에
의한 우리 조국의 슬픈 역사를 되새겼던
일들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日本 땅을 밟으며

일본과 우리 나라의 정상들이 만날 때마
다 선린우호 관계를 강조해 왔고, 특히 일
본 패전 50주년을 맞이해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
라들, 특히 아세아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표현
한다” 라는 뜻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일
본 정상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사죄의 뜻을 표해왔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신뢰도는 얼마까지
않아 무너지고 일본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은 일본을 믿을 수 없는 나



서 오근
무안문화원장

“역사교과서 왜곡은 비판 마땅하나 친절·환경보호정신은 본받을 만”

라로 의심해왔고 지금도 의심의 마음은 여전하다. 이에 대한 발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일본은 말로만 사죄하고, 반성할 뿐 실제로는 역사를 왜곡하고, 일급 전범들을 안치한 신사를 국가를 대표하는 각료들이 공적인 참배를 하는 등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행동을 일삼아 왔다.

특히, 2세를 교육할 역사 교과서에 까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 또는 미화하는 내용으로 집필해 미래에도 왜곡된 역사관을 그대로 심어주려는 저의를 보이고 있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땅을 밟는 나그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고 임진왜란 때 코와 귀를 베인 무고한 선인들의 환영이 다시금 뇌리를 어지럽혔다.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공민관 연수길에 오른 우리의 표면상 목적은 '문화의 시대를 맞아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었지만 이웃나라 일본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다지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은 진심의 바탕 위에 이뤄지고 발전한다고 전제할 때 우월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독자제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사회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공민관을 돌아보고, 우리 문화원의 역할강화를 위한 소회를 밝혀야 할 텐데 이러한 글은 앞서 동참했던 문화원장님들의 심도있는 소견 발표문이



일본을 방문한 문화원 관계자 일행들이 법륜사에서 주지스님의 안내를 받고 있다.(위)

생애 학습센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문화원 관계자 일행들

있으므로 본인은 이 테두리를 벗어난 각도에서 이 글을 전개하고 있다는 느낌 없지 않으니 십분 이해해 있으시기 바란다.

일본에서 반짝이는 한국문화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일본문화의 밑바탕에는 한반도 문화가 전래돼 절대적인 작용을 해왔고, 발전의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라(奈良)를 여행해 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전해져서 일본문화의 꽃을 피운 시대는 '아스카시대(飛鳥時代)'라 일컫는다. 일본이 한반도의 삼국(三國)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바로 '아스카문화'다.

나라에 소재한 법률사에는 우리민족의 손길로 만든 국보급 문화재가 가장 많이 있다.

목조건물(木造建物)로서 세계 최고(最古)로 평가받는 법률사의 금당은 우리 기술에 의해 건축된 것이고, 우리들이 국사교과서에서만 보아왔던 담징의 금당벽화라던가, 단아하고 섬세한 백제관음상, 법률사 몽전에 있는 구세관음상, 백제 지리불사가 만든 석가삼존상 등 우리민족의 손길로 만들어 국보로 지정된 걸작들을 보며 백의민족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가삼존상(釋迦三尊像)을 만든 것은 백제인인 지리불사가 분명함에도 막연히 도래인(渡來人)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것인지 국적을 숨기기 위해 쓰고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한 술 더 떠 日本人 史家 足立卷一이 지은 '奈良의 大和路'란 책을 보면 지리불사를 중국 귀화인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 계획적으로 한국인임을 묵살하려는 저의가 숨여있지나 않은지 심히 의심스럽다.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펼치면 처음 몇 쪽에 일본의 대표적인 국보들의 사진이 게재돼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일본에 보내준 문화재이거나 또는 한국인이 옛날 일본

으로 건너가서 만든 것들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설명문에는 한국이라는 표시는 단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의 왜곡 근성을 더욱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일본이 진정한 문화국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은 빠지도 말고, 더 보태지도, 지우지도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경천에서 노니는 잉어

동경의 도심을 흐르는 시내는 맑고 깨끗했다. 그리고 팔뚝보다 더 큰 잉어와 칼자루같은 누치떼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허벅지에도 못 미치는 시내이므로 천렵을 할만도 한데 누구 한 사람 욕심을 내지 않고 구경만하고 있었다. 동경 인구는 1,300만이라는데 1,300만이 쏟아내는 폐수가 얼마나 될지를 생각했으나 욕안으로는 그리 오염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일본에서 며칠 묵으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일본식당에서 식사해보면 한국처럼 다 먹지도 못 할 음식을 잔뜩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차려놓기 때문에 오염원의 주범이라 할 음식쓰레기가 거의 안나온다.

그리고 집집마다 철저히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심한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음식문화의 개선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국민운동이 아닌가 싶다.

친절하고 인사성 밝은 사람들

일행이 여러 곳의 공민관이나, 시청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상냥했다. 방문 후 연수를 끝내고 버스를 타고 가노라면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든다. 그 정경을 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다.

길을 물어 보면 그럭저럭 건성으로 대답하는 일도 없다. 시간이 걸리고 바쁘더라도 자세하게 길을 일러주고, 어떤 경우에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까지 동행해서 길을 세세히 일러주는 모습은 그들의 몸에 밴 친절을 가늠할 수 있다 하겠다.

맺는 말

일본은 부정적인 많은 것들을 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심어 주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 나라처럼 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만 매달릴 수만은 없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 이웃 사촌으로서의 유대를 강화한다면 양국관계는 선린우호가 증진되고 양국 발전에도 큰 힘이 될 줄 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교과서 왜곡과 같은 속 보이는 사건을 범하지 않는 것이고, 진실한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 등은 가장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지만 그들의 친절과 질서의식, 철저한 환경보호 정신 등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임을 절감했다. **한민**

여객기의 거대한 날개 아래로 눈덮인 후지산이 멀리 보이자 일본에 다다른 것을 알았다. 몇 해 전 오이타현(大分縣)을 견학하느라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본 적 말고는 본토 방문은 처음이다. 하늘에서 본 울창하고 푸른 산야, 땅에 내려 버스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풍만하게 넘실대는 강물들, 좁은 고속도로와 거리의 자전거들, 바쁘지만 서두르지 않고 보행하는 사람들, 짧은 치마를 교복으로 입은 여학생들과 필자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검은색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 자전거 앞바퀴 위에는 야채를 담은 시장바구니가, 뒤에는 서너 살 쯤 된 어린아이를 태우고 가는 주부들의 모습도 들어온다.

초대형 빌딩 숲 속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관목이 빼곡이 들어차있고 블록마다엔 도시 내의 공원이 온갖 수종(樹種)의 꽃나무를 가꾸어 놓았다.

양복을 입었지만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은 차림의 젊은이들. 무표정한 얼굴과 험클어진 머리 곁은 다음 일을 하러 가는 궁리로 가득한 것 같고 우리 보다 조금은 덜 세련된 복장의 도시 여성들도 어디론가 바쁘게 걷고 있다.

이러한 단상들이 얼마 전 다녀온 국제도시 도쿄의 첫 인상이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편견 없이 우리와 제일 가까운 나라를 한 번 알아보고 싶었다. 그것도 수 천년 동

안 우리와 거듭되는 '선린우호와 견원지간'의 표리부동 관계의 양극이 무엇이었는지 그 단초를 찾아낸다면 그것이 이번 연수의 커다란 수확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터였다.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일본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구조물로는 교회의 십자가와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간판, 그리고 교외의 '가든'이라는 식당이다. 물론 화려로운 예식장 건물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차창으로 보이는 산야의 공동묘지와 같은 매장 시설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일행이 묵은 도쿄 신주쿠 워싱턴 호텔 바로 앞에는 2채의 쌍둥이 빌딩인 도쿄도청(東京都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저녁 9시까지 46층 전망대에 관광객이나 방문객을 안내한다. 거대도시 도쿄를 사방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예의 기념품이나 선물 판매대, 판매용 음수(飲水) 장소의 준비는 물론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숙소인 신주쿠 워싱턴 호텔 입구 우측엔 일본 사람들의 작은 기도 공간인 위건천존당(韋戡天尊堂)이 있다는 점이다.

즐겁고 풍족한 생애학습센터

도쿄 동쪽 스미다 강 옆에 위치한 스미다 공민관(생애학습센터)은 도쿄 외곽의 서민층 밀집지대에 자리한다. 1980년 국제화·정보화·고령화 정책·늘어나는 여가시간등의 문제에 효율적인 대책을 위한



고 종 현
정선문화원 사무국장

신간선에 놓고 온 일행의 카메라 찾아준 '일본'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80대 할머니의 모습

생애학습방안의 마련으로 입안되기 시작했다. 1981년 문부성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생애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1986년 구민 약 21만 명의 스미다 구(區)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 1990년 검토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1992년 7월에 착공했다. 그리하여 1994년 12월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8,448㎡(약2,580평)의 스미다 구 공민관(생애학습센터)을 마련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나 걸린 셈이다. 이곳에 투입된 건축비와 설비비는 64억엔으로 우리 돈으로 약 6백40억원 정도다.

이 안에는 천체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고 업그레이드 된 컴퓨터 30대, 공연·발표의 총체적 연출·공연 가능한 마스터 홀(master hall), 개인 학습은 물론 스터디 그룹이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구비돼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1백회 이상의 강좌가 구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강좌는 철저하게 소그룹 육성을 위해 개최된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구민을 위한 정보지(매 분기 발행)를 기획·편집·발행·

발송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민관 실내외의 청소 등을 담당한다고 한다.

마스터 홀은 관객 수에 따라 객석의 수를 제어, 조정할 수 있도록 첨단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실과 편집실에서 편집·복사 등의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2층은 어린이 보육시설로서 아이들의 그림과 문예작품 등이 게시돼 있었고 일본 전역에서 우송되는 문화와 학습에 대한 온갖 서적들이 비치돼 있었다.

특히 컴퓨터실에 들렀을 때 어두운 눈 위에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80대 할머니의 모습은 필자의 발길을 무겁게 했다. 평생학습의 실제 예를 남의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1만 인구의 스미다 구의 공민관은 공무원인 직원이 9명이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인력을 담당하는 용역회사의 송출직원 70여 명과 자원봉사자 3백여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한다. “직원들은 그 날의 업무량에 따라 2교대 근무를 한다”고 관장은 말한다.

스미다 공민관의 운영방침은 “구민

이 선생이고 학생 관계이며 보다 성숙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형성을 위하여 즐겁고, 풍족한 인생관으로 생애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스미다 구민 중심의 생애학습이 목적”이라고 말한다.

물론 주지하는 대로 우리의 문화원과 일본의 공민관을 단순히 상대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들은 그들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독창성과 보존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운영 목표를 가꾸어 나가면 된다고 본다.

생소함은 인식의 부재서 비롯

당초 필자는 일본의 사회구조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역사적으로 우리와 괴리감과 적대감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에 대해 일부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스미다 공민관의 견학을 마치고 그 날 오후 농림회관에서 조우한 일본공민관연합회의 회장단과 문부성의 담당직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부터였다. 일본의 회장단이나 문부성 직원은 우리 일행의 질문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한 사실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한국의 문화원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일본은 우리와 달리 한다. 그러니 그 이유를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 얘기는, “우리 집은 오늘 아침 쌀밥을 먹었다. 너희 집은 보리밥을 먹었는데 왜 보리밥을 먹었느냐?”라고 묻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문화적 양태(樣態)가 생소한 것의 구명(究明) 관계는 개인의 과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사유(思惟)의 결핍에서 오는 인식(認識)의 부재' 현상과 같은 것이었다.

귀무덤에서 가슴 아픈 한국인

11월 22일 오전 9시 도쿄 역에서 초고속 열차인 신간선을 타고 교토(京都)로 향한다. 가는 도중 오른쪽 차창으로 보이는 후지산(富士山)을 촬영하느라 카메라를 준비하는 일행이 여럿이다. 일행 중 한 분이 카메라를 무릎 위 물건바구니에 두고 그냥 교토 역에 내렸다. 이미 신간선 열차는 출발했다. 가이드를 통해 교토 역 사무실에 분실물 신고를 하고 일정에 따라 귀무덤(耳塚)과 교토박물관 견학이 이어졌다.

임진·정유 양란(兩亂) 당시 조선사람들의 주검이 확인되는 귀무덤은 어찌하여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위패를 봉안했다는 신국공사 발치에 외롭게 자리하는가. 철책의 벗겨진 페인트 자국, 녹슨 자물쇠를 말없이 걸어와 열여주며 그간 다녀간 한국사람들의 방명록을 보여주는 관리 할아버지. 일행들이 모여서 이충을 향해 고개 숙일 때의 형언할 수 없는 갈등. 이 자리에서 가슴 아픈 사람은 바로 한국인뿐일 것이다.

옛것을 현재와 연결해 학습

오사카(大阪) 부근 카이즈카 시립 아마테지구 중앙공민관은 이날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

이 나와 일행을 맞아 주었다. 이들은 중앙공민관 외 4개의 공민관이 아마테지구 네 곳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민관 내부에서 시립회관으로 통하는 통로에는 중앙공민관 건축 당시 발굴된 우물井자의 목책과 토기편, 와편 등이 발굴 유품이 잘 정돈돼 있었다.

이들 공민관은 우선 문화공간이 충분하게(우리의 관점에서) 확보돼 있으며, 시설물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만족할 만큼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문화센터나 시·군 문화예술회관에 견줄 수 있는 분위기였다. 소프트웨어는 철저하게 주민 중심이며 소규모 그룹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은 굳이 비교한다면 우리의 문화학교와 유사한 성격이라 할 수도 있겠다. 공민관의 시설은 누구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세미나 실, 공개홀, 기자재 등은 실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수용자 부담 원칙이 철저하다. 물론 그 비용은 말그대로 '실비(實費)'다. 그런데 공민관에는 '화실(和室)'이라 하여 일본의 전통 생활이나 전통의 '문예(文藝)'를 실습하는 다다미 공간이 있다. 동경의 한국문화원에 마련한 우리 전통의 사랑방 같은 구조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같은 옛것을 익히고 또 다른 현대식 공간의 첨단 기기를 이용하여 과학의 응용방법을 학습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박물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도쿄의 국립역사박물관, 교토의 국립박물관, 오사카의 민족학 박물관 그리고 청수사나 동대사, 오사카 성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옛것을 현재와 분리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

드시 현재와 연결해 학습하도록, 또는 관광하도록 배치했다. 현재의 근거가 역사이며 역사의 출발과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됐음을 아주 평이하고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 안에서 자란 사람은 그 통시적 시스템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총체적으로는 일련의 장치이지만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방색이 강렬하게 배어 있다는 것은 분별하기에 어렵지가 않았다. 이는 다른 뜻으로 각기 다른 일본 전역의 지방색을 큰 물줄기 안으로 흡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연수의 밤이 지나가고 있다. 신간선에 놓고 온 카메라가 오사카 역에 보관되어 있으니 찾아가는 연락이 우리 가이드에게 왔다는 소식이다. 저녁 때 본 공원의 노숙자와 그들이 묶는 푸른색 천막이 지나간다.문

●

옛것을 현재와 분리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재와 연결해 학습하도록,
또는 관광하도록 배치했다.
현재의 근거가 역사이며
역사의 출발과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됐음을
아주 평이하고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하고 있었다.

●

지난 11월 20~24일 4박5일간 '선진 문화를 배워 21세기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문화기반시설의 책임자가 되자'는 취지아래 2차 일본공민관 연수가 있었다. 문화시설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일본 나리따 공항에서 호텔로 오는 동안 만감이 교차했다. 그것은 친절하고 상냥한 얼굴의 일본사람들과 우리는 무슨 악연의 끈이 그토록 깊고 질기기에, 수 백 년 동안 역사의 아픔과 상처가 수반되었는 가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참으로 아이러니 다. 고려 초기 때만 해도 일본은 우리와는 현격히 떨어지는 문화적 수준을 가진 나라 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문화를 배우 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방문할 만큼 급성 장했다.

일본이 장족의 문화적 발전을 이룩할 동안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 니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하고 허탈하기 이를 데 없는 심정 이었지만 가슴에 담고 배울 것은 배우자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일본 연수는 그렇게 시 작됐다.

거대한 기반시설과 넉넉한 운영지원

빠듯한 일정 속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 은 동경에 있는 스미다구 생애학습센터. 우선 그 거대한 시설물에 우리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일본의 문화에 대 한 관심과 애정을 단번에 읽을 수 있었다.

동경 동쪽 스미나 강변에 위치한 생애학 습센터는 시민의 재교육과 여가생활, 나이 가 재취업을 위한 문화정보시설이다. 운영 실태와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우리 광진문 화원과 매우 흡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 어 반가움이 앞섰지만, 거대한 기반시설과 넉넉한 운영지원을 생각하니 오히려 열패 감이 앞섰다.

관장의 설명과 함께 시설물 관람 후 동 경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을 방문했는데 여 기서도 그 열패감은 더해졌다.

1979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원은 일본 내에 있는 수만군데의 문화기반시설 중 어 느곳보다 못한 시설이었다. 민간인 단체 건물의 두 개 층을 세내어 사용하고 있는 데다 정직원 2명과 현지 채용직원 몇 명이 고작이었다.

싫건 좋건 너무도 가깝기에 일본과 한국 은 끊임없이 공존과 경쟁을 해야하는 숙명 적인 관계다.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일 본과의 갈등이 당분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문화적인 교류와 협력의 중차대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국문화원이, 한국 의 얼굴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럽기 이 를 데 없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에게 한국문화원이 어떻게 비취질까를 생각하 니 순간 오싹했다.

시민과의 밀착성 중시하는 공민관

다음날은 일본 공민관 전국연합회를 방



이 선 우
광진문화원 사무국장

지방문화원의 미래는 밝다



스미나구생애학습센터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일행들

문했다. 그들은 예우차원에서 우리를 호텔로 초청했고 각별한 성의와 예를 표했다.

일본내 초등학교 숫자와 거의 같은 2만여 공민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과 운영실태, 그리고 하드 및 소프트적인 자료를 받아듣고 보니 일본의 문화에 대한 필요이상의 투자규모에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동경에서 신간선을 타고 오사카도 요나카 시립공민관을 방문했을 때는 어느덧 귀국 하루를 남기고 있을 때였다. 인구 35만 명에 대규모 공민관이 동서남북으로 균형있게 네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한 공민관은 10개의 공민분관으로 이뤄져 있었다.

또한 강좌·재교육·정보교육 등의 사업은 균등하게 하면서 동 단위 공민분관의 문화활동은 정서와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개발해 시민과의 밀착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국립역사민속박물관·국립교토박물관·동대사·국립나라박물관·국립민족학박물관·오사카성·신바이마시 유적 등을 견학했다. 대륙적인 기질과 융맹성 그리고 거대한 고대

건축예술을 보면서 일본인들의 기질을 읽을 수 있었다.

굳이 역사왜곡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나라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때부터 일본은 문화적인 눈부신 발전이 있었는데 오늘날 일본은 왜 역사왜곡을 일삼는지 그 역사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미즈카 귀무덤서 느껴지는 절규

교토박물관에서 약간 떨어진 미미즈카 귀무덤을 찾게 됐다. 가로 세로 10미터, 높이 9미터 정도. 실제로 코와 귀를 잘라 모은 실물크기와 같은 무덤이라는 것이 안내인의 설명이다.

일본인의 엽기적 잔혹성에 경악을 금치 못해 어떤 말이나 행동도 취할 수가 없어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었다.

밀려오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굴욕감에 치를 떨면서도 오히려 그 시대의 나약하고 무능한 우리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담지 못할 욕설까지 나왔다. 불쌍하고 나약한 국민들이 무슨 죄가 그리 많아 그런 도륙을 당해야 했으며,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했고, 조정은 무엇을 했었기에 그냥 보고만 있었

는지에 대한 분노였다.

선택의 여지없이 그 시대에 태어날 수 밖에 없었던, 선량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조상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니, 코 끝이 찡한 전율에 눈물마저 나왔다. 약하고 무능함은 곧 죄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니, 조상님들의 고통과 절규의 울부짖음이 귀에서 맴도는 것 같아 한참을 그렇게 더 서 있었다.

“일본 앞지를 원동력 있어”

4박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일본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우고 깨달은 부분 역시 기대 이상으로 많았다.

문화기반시설을 일본과 비교해볼 때 열악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한국의 우리문화원도 얼마든지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열악한 문화 기반시설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그리고 지방문화원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가 아직까지는 부족할 지라도, 소위 형그리 정신과 사명감 그리고 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운영실태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폭넓은 문화 활동은 토탈 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이루게 되고 언제든지 기반시설이 마련된다면 그것은 바로 노하우이자, 짧은 시간 내에 일본을 훨씬 앞지를 수 있는 원동력이기에 우리의 미래는 긍정적이다.

한국문화와 지방문화원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라는 희망적인 전망으로 미흡하나마 일본 공민관 연수 견문을 맺는다. 

잊을 수 없는 전쟁의 기억, 그 속에 녹여낸 애절한 부부애

박 계 현 기자 fire@kccf.or.kr

호타루

만
다
잊
혀
지
는
것
이



우 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철도원>의 다카쿠라 켄 배우와 후루하타 야스오 감독, 기무라 다이사쿠 촬영감독. 그들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시골마을의 자그마한 역 '호로마이'에서 '가고시마'의 작은 어촌으로 옮겨와 또다시 뭉쳤다. 이 둘 세 사람은 영화 <호타루>(1월 18일 개봉)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통해 인간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순수하고 고귀한 마음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영화 <호타루>는 전쟁의 상흔,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조심스레 이야기한다. 전쟁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묵묵히 살아가는 두 부부.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 함께 했던 인생여정을 돌아보는 남편. 부부는 차마 마주하기 힘든 과거의 상처와 대면하게 된다. 영화는 태평양전쟁 전후의 어려운 세월을 더불어 살아온 두 부부의 숨겨진 사연을 풀어놓는다.

자살특공대원 조선인 이선재가 사랑했던 약혼녀 도모카! 그녀의 상처까지 사랑한 아마오카!

일본 가고시마의 조용한 어촌 마을. 노을이 지는 고즈넉한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작은 어선에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면 익숙한

멜로디의 하모니가 연주가 들려온다. 아마오카(다카쿠라 켄 분)는 수십년간 원앙 기잡이로 명성을 떨쳐온 실력있는 어부. 사랑하는 아내 도모코(다나카 유코 분)와 그녀의 이름을 딴 어선 '도모마루'는 그의 인생의 전부다. 그러나 도모코에게 신장병이 생기자 아마오카는 간병을 위해 인근해 양식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이들의 일상안으로 천황의 서거에 뒤이어 옛 친구 후지에(이가와 히사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아마오카 부부는 가슴속에 묻어왔던 과거를 회상한다.

2차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945년. 당시 특공대원이었던 아마오카와 동료 후지에는 마지막 출격을 눈앞에 둔 가네야마 소위의 유언을 듣게 된다. 조선인 출신인 그의 이름은 김선재.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달을 수 없는 이별을 고한 채 폭탄을 안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아마오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실의에 빠진 가네야마의 약혼녀 도모코와 대면하게 된다. 이후 도모코가 가네야마를 잊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상처까지 사랑한 아마오카는 그녀와 인연을 맺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편 전쟁 당시 특공대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던 치란의 여관주인 도미코 여사(나라오카 오모코 분)는 아마오카에게 몸이 불편한 자신 대신 가네야마 소위의 유

품을 한국에 있는 유족들에게 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 한다. 야마오카는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안고 있는 아내의 회한을 달래주기 위해, 그리고 상처받은 과거와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을 결심하는데...

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선재의 고향 한국을 찾는 야마오카와 도모카부부

영화 <호타루>는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닌 두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가슴 따뜻하게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어린 시절, 출격을 앞둔 특공대원들을 만난 경험이 있는 후루하타 야스오 감독은 “<호타루>를 통해 세월로부터 버림받은 채 잊혀졌던 이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감독은 아픈 과거를 등에 업고 맺어진 야마오카와 도모코의 40년이 넘는 세월의 여정을 표현하면서 쿠니요시 료이치의 음악으로 작품에 따뜻함을 불어넣고 있다. 영화 전편에 흐르는 하모니카 연주곡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스코틀랜드의 전통민요. 이 곡은 야마오카의 깊은 상념과 어우러져 호소력 짙게 다가온다. 잔잔하면서도 애절하고, 특별하면서도 낯설지 않은 음악들은 인물들의 감정선을 충실히 따라가며 화면의 여백을 메우고 있다.

매력적인 영화음악만큼이나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아름답고 서정적인 영상이다. 눈덮인 겨울산의 매서움부터 모든 것을 포용할 듯한 바다의 포근함. 일본 사쿠라지마를 뒤로 한 아름다운 자연이 파노라마처럼 스크린 위에 펼쳐진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수려한 영상은 남다른 인생의 회한을 간직한 사람들의 감흥과 어우러져 빛을 더한다. 특히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등장하는 안동하화마을은 고풍스런 한국의 미를 드러내는데 안정맞춤. 감독은 옛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하화마을의 독특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곳을 선택했다고 한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과 서정적 영상, 그리고 배우들의 농익은 연기는 스크린에 자연스럽게 조율돼 자칫 고루해 보일 수 있는 소재와 무거운 주제 의식을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호소력과 따뜻한 정서로 풀어 나가고 있다. 이는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큰 몫을 한다.

안동하화마을, 클라이맥스에서 고풍스런 한국의 미 보여줘

다카쿠라 켄은 영화를 끝낸 후 인터뷰에서 “특공대.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스무살 전후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죽더라도 반딧불이가 되어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절박한 시기에 말입니다. 지금 시대라면 아마 틀림없이 특공기에 타기 싫다며, 어떻게든 가지 않을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과 국가를 생각하며, 단 하나뿐인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보면 이번 작품이 특공대영화, 전쟁영화라는 말을 들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어떤 부부에게나 마음의

상처는 있습니다. 그것이 야마오카와 도모코에게는 전쟁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전쟁에 대해 뭔가를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문**

자료제공: ALL THAT CINEMA



우유는 50대이후 남·녀 골다공증 ‘예방약’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이라도 균형 안맞으면 0점

좋은 식단이 곧 우리 몸의 보약이 된다는 등식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콜레스테롤이 높 아질까봐 새우나 오징어, 계란 등을 아예 먹지 않는다거나 육류는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는다가나 하는 식의 편중된 식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먹을 지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영양면에서는 0점인 식단 이 될 수 밖에 없다. 질병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몸에 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바로 알고, 먹는 방법에도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먹어야 몸의 균형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식물성·동물성 단백질 반반 섭취로 신진대사 조절해야

여러 영양소 중 단백질은 가장 기초적인 영양소다. 단백질 은 인체의 근육이나 내장 등 각종 세포를 구성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생명현상의 중심 역할을 하는 효소를 만들어 체내 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진대사를 조절하기도 한다. 또 세포막 의 구성성분이고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중요 요소가 된다. 결국 우리 몸의 기능은 단백질에 의해 좌 우되고 있는 셈. 잡곡밥에다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생선·조개류 등과 식물성 단백질인 곡류·콩류 등으로 균형을 맞 춰 식단을 짜 식물성단백질과 동물성단백질을 반반씩 섭취 하도록 한다.

콩으로 만든 음식섭취하면 암 예방할 수 있어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하 다. 식물성 단백질 중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식품이다. 콩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들어 있어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인체의 구성성분이 되기도 한다. 또 동맥의 노화를 방지해 중풍을 예방하고 심장의 관상동맥 순 환을 정상화시킨다. 또한 항암 작용과 면역력 강화 작용이 뛰어나며 인슐린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어 당뇨병 환 자에게도 좋다.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 대소변의 소통을 정상화시키고 비만한 사람이나 술을 많이 먹는 사람도 피 속 의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리게 해 고지혈증을 막아준다. 따 라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콩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콩을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은 된장. 된장은 어떤 음식 에나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최고의 건강식이다. 된장 뿐 아니라 콩으로 만든 두부 나 콩비지, 순두부 등은 소화가 잘돼 특히 노인들의 건강식 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 중의 하나이다.

등푸른 생선은 뇌졸중 방지에 좋아

고등어, 정어리, 꽂치, 참치 등의 등푸른 생선은 핵산과 EPA, DHA 등 몸에 유익한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핵산은 몸 속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합성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합성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품으로 보충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피를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의 침전을 막아 줘 중년 이후 성인들의 사망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뇌 졸중 방지에 좋다.

육류와 달걀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을...

채식이야말로 장수식이고 육식은 단명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곡물과 채소만으로 이루 어진 저단백질 식단은 뇌졸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식단 구성에 적당한 조화로우미 필요하다. 단백질 섭취에 소홀하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달걀을 하루 1개 정도 섭취한다. 달걀 1개 정도는 콜레스테롤 염려가 없으며 필수아미노산과 비타 민보급에 좋다.



요구르트는 변비 개선과 암예방에 특효

우유는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칼슘 식품이라 3대 노인병 중의 하나인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칼슘은 단백질과 결합해 뼈나 이를 만들기 때문에 칼슘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유는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풍부한 최고의 영양 식품이다. 50대 이후 남성은 200ml, 여성은 400ml 씩 매일 매일 마셔 칼슘 섭취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또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알려진 요구르

트는 변비 개선은 물론 암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

대추로 입맛을 돋우고 비장을 튼튼하게

대추의 식이성 섬유는 발암물질을 흡착, 배출해 몸 밖으로 밀어내고 베타카로틴은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독한다. 뿐만 아니라 비위를 튼튼하게 해 위장의 기운을 북돋워 식욕을 촉진시킨다.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노화를 방지하고 부인병에 특효가 있어 한방에서는 신비로운 식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건강식단을 위한 제언

▲음식은 여러 가지 종류를 골고루 먹되 소식한다.
▲아침·점심·저녁 세끼 식사 때마다 채소는 꼭 먹는다. ▲식물성·동물성 단백질을 반반씩 섭취해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최저 50g, 최대100g의 고기를 매일 먹는다.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먹어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생선을 고기보다 많이 매일 먹는다. ▲염분을 적게 섭취한다. ▲해조류를 적어도 한 가지씩 매일 먹어 혈압을 조절한다. ▲두부처럼 소화·흡수가 잘 되는 콩제품을 매일 먹는다. ▲제철과일을 하루에 한번씩 섭취해 비타민C를 확보한다.

상당한 채소는 미네랄과 비타민의 보고

채소는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는 생명체이고 인체에 없어서는 안될 미네랄과 비타민의 보고이기도 하다. 계절에 맞는 채소를 매일 5가지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일과 해조류 섭취로 혈압을 낮춰

식후에는 과일을 먹도록 한다. 과일을 섭취하지 않으면 비타민C가 결핍돼 몸 속의 저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잘 걸린다. 또, 철분의 섭취나 콜레스테롤의 배설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고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다. 미네랄이 풍부한 해조류 또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외출 준비를 하는데 현관문 밖에 인기척이 있다. 아파트 생활을 적지 않게 했음에도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사람과 마주치는 일은 아직도 여전히 쑥스럽다. 평소 같으면 인기척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겠지만 이번에는 약속시간이 촉박한 지라 그럴 여유가 없다. 지난 일요일 807호에 새로 이사 온 바로 앞집 남자가 손님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던졌지만 반응이 없어 서로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서로 등지고 뚱하니 승강기 안에 서 있다가 807호 남자가 앞서 나가고 나는 뒤따라 서먹하게 나왔다. 낯설이라도 더 먹은 내가 806호 아무개라고 인사를 먼저 채길 것을 그랬나 싶기도 했지만 하여튼 807호 남자가 좀 맘에 걸렸다. 하기야 아파트에 무슨 이웃이 있었나 싶어서 피식 웃고 말았던 일이 있었다.

늦은 저녁 귀가하던 중 앞집 807호 현관문 앞에 눈길이 멈추었다. ‘아기가 잠들어 있어요.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푼말이 큼직하게 붙어 있었다. ‘개조심’이나 ‘방범장치 가동중’이라는 푼말은 종종 보지만 이런 문구는 처음이라 헛웃음이 나온다.

이웃



며칠 전 아내로부터 807호에는 젊은 부부와 두 살배기 아들, 이렇게 단출한 세 식구가 이사 왔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남자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났다. 가뜩이나 귀가시간이 늦은 나이에 앞으로 주의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아침 일이 생각나 언짢은 생각에 겹쳐 꽤 까다로운 젊은것들이 앞집에 사는구나 싶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집 이야기부터 한다. 앞집 젊은 여자가 경비실에 907호와 707호를 신고해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907호 위층

이야 한참 장난이 심할 또래의 사내아이가 셋이나 되니까 쿵쾅거리는 거야 보통이겠지만, 707호 아래층은 할머니 단 두 식구인데 무슨 문제일까 싶다.

그런데 아내 말로는 며칠 전부터 할머니가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다 기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가끔 희미하게 ‘깹깹’ 대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했더니 강아지 그놈이었다. 그런데 807호 젊은 여자가 얼마나 거세게 항의를 했는지 위층과 아래층 집에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나와 조사를 하고 갔다고 한다. 나는 807호 젊은 남자가

좀 뭐하다 싶었는데 그 남자 아내도 맹랑하구나 싶었다.

그런데 다음 날에는 807호 남자가 관리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간 모양이다. 전후사정을 나름대로 추측한 관리사무소 측에 의해 907호와 707호는 급기야 아파트 전체 소음 공해의 주범인양 몰려버렸다. 이제부터 907호내 애들은 발레를 하듯 사뿐사뿐 걷는 연습을 해야 할 판국이었고, 707호 노부부는 “깡깡” 대는 강아지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할 지경이었다. 807호 현관문에 붙었던 풋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적어도 807호 위 아래층은 깊은 산 속 절간이라도 되는 양 적막하다는 기분이 날 정도가 돼버렸다. 젊은 부부의 성화가 내가 사는 806호까지 펴세라 텔레비전 볼륨마저 낮춰야겠다며 나는 아내한테 투덜거렸다.

그 얼마 후 무심코 807호 현관문을 바라보던 나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풋말이 없어진 것이다. 누가 떼어 버렸나 해서 궁금해하는 내게 아내는 연신 묘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내의 말은 대강 이러했다.

“낮에 807호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807호 여자가 잠시 눈을 땀 사이 807호 두 살배기가 무엇인가를 주워 먹었는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쓰러져 버둥댔다는 게다. 당장 807호 남자한테는 연락이 좀처럼 안 되고 119에 걸어 놓고 동동거리다 복도로 튀어 나와 애가 죽는다고 외치며 사람 살려달라고 찢어지는 목청을 질러댔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누구도 어찌할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리는데 707호 할머니가 대뜸 아이를 품에 안더니

배를 주무르다가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아이는 몽클몽클한 식빵 덩어리를 토해내고는 참았던 숨을 푹푹 내쉬고는 땀을 흘리며 물을 달라며 울더라는 것이다. 오래 돼 말라버린 빵 덩어리가 두 살배기 목에 걸린 거였다. 그런 건 그 즉시 그저 등만 두드리거나 입에 손을 넣어 욕질하게 하면 그만인 일이었지만 젊은 807호 여자가 손댈 줄을 몰랐던 탓이었다. 707호 할머니가 아이를 807호 여자한테 안겨주니까 그제야 정신이 든 애 엄마가 애를 껴안고 707호 할머니 손을 잡고 울더라는 것이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간 뒤에야 707호 할머니가 조용히 내려갔다는 것이다.” 아내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왜 현관문 벽보가 없어졌는지 알만했다.

아마도 807호 젊은 부부는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아해도 외판 섬처럼 살 수 없음을 깨우쳤을 것이고 707호 할머니의 슬기로운 민간요법을 보고 왜 이웃 사촌이라 했는지를 터득했을 터이다.

경제적 이해(利害)만을 따져 인생을 보면 산다는 일이 삭막해져버린다. 그러나 이웃 정을 나누며 서로 아침마다 밤새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나누며 산다면 사는 맛을 누릴 수도 있는 일이다.

소동이 벌어졌던 다음날 807호 젊은 부부가 707호 노부부 댁으로 찾아가 큰절을 올리고 자식을 살려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누누이 사죄했다는 소문이 우리 아파트 3계단의 미담(美談)으로 아파트 단지에 쭉 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두 살배기 목구멍에 걸린 빵

조각 덕에 모르고 살았던 이웃을 되찾은 셈이다. 그래서 우리네 만사(萬事)를 두고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하는 모양이다. 서로 정을 나누며 돕고 사는 사이가 바로 이웃이란 지혜를 두 살배기가 가르쳐 준 셈이다. **문**
〈전국문화원연합회 발간 ‘생활문화 이려서야 되겠습니까’ 중에서〉

● 아파트 807호 젊은 부부는

아이들의 쿵쾅거림이

들리는 907호와

강아지가 깡깡대는 707호

노부부집을 신고했다.

그런데 어느날

807호 두살배기가

무엇을 먹었는지

버둥대기 시작했다.

807호 부인은 사람 살려달라고

찢어지는 목청을 질러댔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누구도 어찌할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리는데

707호 할머니가

대뜸 아이를 품에 안더니

배를 주무르다가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아이는

몽클몽클한 식빵 덩어리를

토해내고는 참았던 숨을

푹푹 내쉬고는

땀을 흘리며 물을 달라며

울더라는 것이다.

【서울시지회】

모순 잘 조화해 현명한 서울 만들어 나가야

서울특별시지회는 작년 12월 13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 3층 강당에서 '넓어진 서울, 과거와 미래의 문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 등 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주제강연자로 임동권 중앙대 명예교수, 주제 발표자로 유민영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장, 유경환 문화기반 시설 평가위원, 김선풍 중앙대 민속학과 교수, 이광표 동아일보 문화부기자, 이흥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김광일 조선일보 문화부기자가 나와 각각 주제발표했다. 또 종합의견자로는 김영상 서울시 지명제정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의식행사,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주제강연,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임동권 중앙대 명예교수는 자리를 메운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옛날 같았으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여자와 같이 앉을 수도 없었을 텐데 지금 보니 여자 참석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금 이 모습이 과거와 다른 서울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세미나의 첫 말문을 열었다. 임교수는 주제강연에서 “사람이 사는 방법에는 첫째 현명하게 사는 사람, 둘째 평범한 사람, 셋째 어리석게 사는 사람, 넷째 나쁜게 사는 사람 이 네 가지가 있다”고 예를 들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서울의 모습은 현명하게, 또는 그렇지

않게도 될 수 있으니 모순을 잘 조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육보근 용산문화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주제발표는 유민영 교수가 ‘문화공간 시설의 활용극대화’란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유경환 위원이 ‘문화공간의 고학력 여성자원봉사자 활용’이란 주제아래 제안 토론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선풍 교수가 ‘서울에 뿌리내려야 할 민속과 생활문화’란 주제로 발제했고, 이광표 기자는 ‘역사 속의 문화와 생활문화’란 주제로 제안토론을 벌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이흥재 실장이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협동’이란 주제로 발제했고 김광일 기자의 ‘도시문화의 특성화’에 대한 제안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상 위원은 이들 발제와 토론에 대해 종합의견을 내면서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문화관광부】

지방문화원 정관개정 절차 안내

문화관광부는 “지방문화원들이 정관 개정 시에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4조(민법의 준용)와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및 문화관광부, 문화재 청서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해 주무관청인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전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에 통보했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지역문화의 해 폐막식 행사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작년 12월 21일 오후 1시 서울 올림픽 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지역문화의 해를 마감하는 ‘2001, 지역문화의 해 새출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p.32~3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 강원발전연구원]

아태지역발전 노하우 공유

아태국가의 지역문화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사회발전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 강원발전연구원은 작년 12월 6일 강원도 춘천 OB베어스관광호텔 2층 소양홀에서 50여명의 지역문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컬처링크 아태지역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컬처링크는 지난 89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발전 10개년 사업’의 하나로 설립한 ‘세계문화발전정보네트워크’다. 이번 세미나에는 톰 오리건 호주 문화 · 미디어정책연구소장(문화 기획과 문화산업 · 지방발전) · 장 하이 등 중국 길림대 초빙교수(중국의 서부지역 개발

전략과 지역문화 자원의 활용) · 강신표 인제대교수(지역문화정책과 지역주민의 갈등과 해소) · 사마산제이 창원대 초빙교수(인도의 문화와 지역개발) · 테레사

랜스즈 필리핀 전 국가 문화예술위원회 부국장(필리핀 전망:문화자원개발) · 김향자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실장(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 이봉구 동의대교수(문화관광마케팅에의 접근전략)등이 나와 각각 주제 발표했다. 세미나 결과물은 웹사이트 및 보고서를 통해 아태지역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대문문화원]

서대문문화원 개원

서대문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서대문문화원은 작년 12월 7일 오후 2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소강당에서 서대문문화원 회원, 임원, 시 · 구의원, 일반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문화원 현판식 및 개원식을 개최했다. 서대문문화원이 서울시 관내에서 23번째로 개원함으로써 전국의 문화원은 2백 14개가 된다. △원장=김환옥, △감사=안보환 · 최승호, △이사=강석중 · 강옥진 · 김남일 · 김남전 · 김문중 · 김영선 · 김태윤 · 김해숙 · 나송주 · 박인국 · 박일동 · 박혜

숙 · 양기석 · 이상조 · 이성용 · 이진용 · 장봉기 · 정승룡 · 조용현 · 조철수 · 채종구 · 최정신 · 황성규 · 홍태성,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산26-155, △전화=(02)3217-1592~3, △팩스=(02) 391-9031.

김환옥 서대문문화원장 >
서대문문화원 현판제막 <



[관악문화원]

2001관악문화원 송년의 밤

관악문화원은 작년 12월 21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관악웨딩문화원 6층에서 유관기관장, 본원, 임원, 회원 등 3백여명을 초청해 ‘2001관악문화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영등포문화원]

영등포문예 제6호 출판기념회

영등포문화원은 작년 12월 15일 오후 3시 영등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영등포문예공모전 시상식과 영등포문예 제6호 출판기념회 및 축하공연을 개최했다.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중구문화원】

제6회 중구 사진전

중구문화원은 작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중구문화갤러리에서 '제6회 중구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광역시

【대전서구문화원】

동지절에 수양원 방문해 따듯한 정 나눠

대전서구문화원은 아름다운 우리민족 전통세시풍속을 계승·보존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동지절이 되고자 작년 12월 17일 사회복지 시설인 수양원을 방문했다. 대전서구문화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풍물, 가야금, 고전, 무용, 민요 등의 전통예술과 대중가요 초청가수 공연, 원생

대구광역시

남구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남구문화원은 작년 11월 2일 문화원 명칭을 '남구대덕문화원'에서 '남구문화원'으로 변경했다. 또 남구문화원은 또 작년 11월 1일 황상영(50·前 대구은행지점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11월 6일 조운정(27)씨를 사무간사로 채용했다.

강원도

【강릉문화원】

제15회 임영문화예술제

강릉문화원은 작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릉문화원 공연장과 전시실에서 강릉문화원 부설 임영향토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솜씨를 모아 '제15회 임영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고성군문화원】

문화원 사무국장도 이젠 필기시험 봐야 임용

"문화원 사무국장도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강원도 고성군 문화원은 최근 최영기 사무국장 후임 자리를 놓고 현재까지의 선임방식에서 변경해 논술과 면접 등을 치르는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선발키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고성군 문화원이 사무국장 선발에 8명의 지역인사가 몰려 만의 하나 빚어질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고성군 문화원 사무국장 선발에는 문화원사상 좀처럼 유례를 찾지 못하는 7:1의 경쟁률을 보였다. 8명의 지원자중 1명은 당일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고성군 문화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논문형 필기시험을 치르고 4명의 감독관으로 하여금 인성검증 시험을 실시해 최종 임용자로 남병욱 前죽왕면 총무계장을 선발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지회】

광주광역시 지회장에 강명보 북구문화원장

광주광역시지회는 작년 12월 12일 오전 11시 임시총회를 열고 제3대 지회장으로 강명보(북구문화원장)를 선임했다. 강명보 지회장은 향토문화진흥에 남달리 노력한 공이 커 문화원장을 수상한 바 있다. 강지회장은 "앞으로도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지역문화창달에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부지회장=이현재, △감사=류현복.

강명보 광주광역시 지회장



【횡성문화원】

횡성의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

횡성문화원은 작년 12월 14일 오후 1시 신라타운 5층 세미나실에서 '횡성의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척문화원】

제9기 문화학교 수료기념 행사

삼척문화원은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삼척문화회관 제1·2·3 전시실에서 삼척문화원부설 제9기 문화학교 수료기념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와 함께 11월 30일 오후 3시부터 삼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국악·풍물 수강생들의 무대공연이 펼쳐졌다. 행사 기간동안 삼척문화예술회관 제3전시실에서는 서예교실의 가훈썬주기 봉사 및 수지침교실의 시민건강 진료가 있었다. 또 삼척문화원은 작년 12월 20일 오후 3시 삼척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제3회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74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을 시상했다.

전라북도

【김제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회 개최

김제문화원은 작년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김제문화원 전시실 2층에서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작품을 모아 한국화·서예 등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주문화원】

노령100호 기념 자축연

전주문화원은 작년 12월 19일 오후 2시 전주 코리아 호텔 무궁화홀에서 '제19회 노령봉사상 시상식'과 '향토 종합지 노령100호 기념 자축연' 행사를 개최했다.

월간 '우리문화'

구독·광고문의
T.(02)704-2311

【영암문화원】

제4회 영암군민 예술제 개최

창무극 월출의 '사계' 등도 공연

영암문화원은 작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도모하고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4회 영암군민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예술제는 영암여고 미술동아리 전시회, 슬문학동인회의 제4집 출판

기념회, 영암군 여성백일장 시상, 서예·미술·서각·한지공예·꽃꽂이·디지털사진·시화전 등의 전시회, 영암민속 예술공연단의 외고무 공연, 교방살풀이 사물놀이의 '시집가는 날' 공연, 영암문화학교 사물놀이 초급반의 굿거리

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영암문화원은 작년 12월 28일 오후 2시 영암문화원 공연장에서 창무극 월출의 '사계'를 공연했다. 또 부대행사로 동지절을 맞이해 '팔죽썬기대회'를 개최해 군민화합분위기를 다졌다.



경상북도

【경상북도지회】

문경시 '논매기 노래' 로 대상차지

경상북도지회는 작년 12월 1일 오후 1시부터 문경시민회관 공연장에서 경상북도내 시·군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제8회 경상북도 향토민요 경창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관객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 모두가 열띤 경연을 펼쳤고 이들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상금과 상장을 받았다. 다음은 입상 내역. △대상(경상북도지사 시상) = '논매기 노래' (문경시, 고시길 외 7명) △최우수상(도지회장 시상) = '상주 모심기' (군위군, 권명옥) △우수상(〃) = '예천아리랑' (예천군, 권미희 외 1명) △우수상(〃) = '쌍가락지' (경주시, 장말란 외 3명) △장려상(〃) = '상주연발 따는 처녀' (상주시, 이문희) △장려상(〃) = '모심기 노래' (청도군, 변이향 외 7명).

【포항문화원】

포항문화원 준공식

포항문화원은 작년 12월 24일 신축한 포항문화원(북구 우현동 네거리)에서 준공식을 거행했다.

【김천문화원】

제4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김천문화원은 작년 11월 26일 오후 3시 문화원 대강당에서 '제4기 문화학교 수료식'을 갖고, 28일까지 3일간 수료생 작품발표회를 개최했다. 김천문화원은 사군자, 문예창작, 민요, 서예, 장고, 스포츠댄스, 종이인형, 퀼트, 스탠실, 만화그리기, 가요 등 11개 강좌를 작년 3월부터 8개월간 실시해 1백9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경주문화원】

'일연과 삼국유사' 강좌

경주문화원은 작년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경주상공회의소 4층 강당에서 '삼국유사'를 지어 우리 민족의 기상을 높이고, 신라사를 밝힌 일연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자 김상현 동국대학교수를 초빙해 '일연과 삼국유사' 강좌를 실시했다.

【문경문화원】

2002년 신년교례회

문경문화원은 1월 2일 오전 11시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2002년 신년교례회'를 갖는다. 한편 문경문화원은 작년 11월 27일 오후 10시 문경문화원 대회의실에서 생활영어교실, 단

전호흡교실 수강생들의 수료식을 가졌다. 또 12월 7일 오전 10시에는 문경시중대강당에서 '지역현장 문화시민교육'을 실시했다.

◀김천문화원

경상남도

【김해문화원】

문화예술 체험하는 겨울방학 특강

김해문화원은 작년 12월 20일 김해문화원 공연장에서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문화원 발전을 위해 협조한 임원, 회원, 향토사연구원, 문화학교 수강생 등 5백여명을 초청해 '문화가족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또 김해문화원은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김해문화원 전시실에서 목정 문운식 선생의 지도로 16명의 회원이 준비한 '제3회 나무나무 숲 전시회'를 가졌다. 한편 김해문화원 문화학교는 12월 27일부터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강을 열었다. 이 특강은 단소, 사물놀이, 연극놀이 등 과목별로 1월 29일까지 실시한다.

【남해문화원】

이충무공 운구(運柩) 재현 행사

남해문화원은 작년 12월 1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충무공의 운구(運柩) 모습을 재현했다. 이는 충무공 순국 후 처음 육지에 모셨던 지금의 이락사에서 노량 총렬사에 체빈(滯殯)으로 모셨던 과정을 재현한 것이다. 이충무공의 호국정신선양과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키 위한 이 행사에는 민·관·군민 2백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진주문화원】

최광진 사무국장 임명

진주문화원은 작년 9월 27일 최광진(56)씨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앞서 9월 12일 이주희(20)씨를 사무간사로 채용했다.



【사천문화원】

동계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

사천문화원은 작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적 소양을 높여 애항심을 고취시키고자 '동계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했다. 또 11월 29일에는 향토역사반의 문화유적 탐방이 실시됐는데 향토역사반의 청소년들은 모충공원 등을 견학했다.

한편 사천문화원은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사천문화원 강당에서 '제4기 문화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가야금, 판소리, 전통무용, 민요, 장고, 고법, 판소리창극, 가산오편대, 사물놀이 강좌의 손목회와 2백28명이 수료장을 받았다.



【마산문화원】

댄스스포츠반 준우승상 차지

(사)21세기 댄스스포츠 경남육성연맹이 주최한 제2회 전국대회에서 마산문화원의 문화학교 댄스스포츠반이 일반부 '차차', '자이바' 부문에 준우승상을 차지했다. 작년 12월 2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문화학교 김정희 선생의 지도하에 출전한 스포츠반의 29명은 신명나게 댄스 기량을 펼쳐 5백여명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의령문화원】

찾아가는 문화특강

의령문화원은 작년 11월 29일 의령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올바른 생활문화정착'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어 12월 13일에는 의령여자중·고등학교 1백40명을 대상으로 '가정예절과 언어생활'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바른말, 고운말쓰기, 지칭과 호칭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찾아가는 문화특강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해문화원】

연도주민과 '화합의 시간'

진해문화원은 작년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경남은행 진해지점 2층 회의실에서 진해문화원 문화학교 '제22기 컴퓨터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박차생 진해문화원장은 인사말에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사는 현대인의 3대 필수조건으로 2개국 이상의 외국어, 운전면허, 컴퓨터를 강조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진해문화원은 작년 한 해 문화학교 컴퓨터 수료생 7백여 명을 배출했다.

또 진해문화원은 작년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해시 연도동을 방문해 전자봉 품물패에서 준비한 길놀이, 민요, 양반춤, 북춤 등을 공연해 '연도 여자 상여소리'의 산실인 연도의 주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진해문화원은 '내고장 문화유산그리기'를 주제로 독서감상문을 공모해 입상작품들을 모아 '꽃잠자리' 제4집을 발간했다.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종로구 이야기판의 설화 종로문화원

이 책은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일러두기를 참고해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설화조사반이 조사한 '종로구 이야기판의 설화 채록 보고서'다. '노인박물관', '설화박물관'이라 불리는 탑골공원, 종묘공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등을 직접 발로 뛰며 수집·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로구의 설화를 정리했다. 책의 구성은 채록날짜와 시간에 따라 이야기판 별로 돼 있다. 이 책은 문화시민의 교양함양은 물론 학자들의 연구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설화조사반 편



내 고장 용인 地名·地誌 용인문화원

용인의 수리적 위치, 옛 지명, 산, 고개, 길, 교량, 하천, 저수지 등 용인지역의 역사와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책. 급속한 개발로 인해 없어져 가는 지형, 지명 등을 고증하기 위해 옛 지도와 현재의 지도를 함께 비교하고 있다. 읍·명·동·리의 지명 뿐 아니라 용인현·양지현·죽산현 등 지지(地誌)에 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명이 갖는 언어적 형태 속에는 토속성이 짙은 방언과 우리말의 고어(古語)까지 잔존하기 때문에 이 책의 발간은 어문 연구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규명의 귀중한 단서로 작용할 것이다. 이인영·김성환 편저



東海市 史料集 동해문화원

동해향토사록 제3집.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동해시와 관련된 史實을 간추리고 동해의 正史를 정리했다. 책의 내용은 동해시의 연혁과 범례, '삼국사기' 동해시 관련기사, '삼국유사' 동해시 관련기사, '고려사' 동해시 관련기사, '조선왕조실록' 동해시 관련기사(조선 초·중·후기)로 구성됐다. 여러 사조가 난무하는 요즘, 이 사료집 속에 담겨있는 동해의 역사적 인물과 기록을 읽다보면 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태평성대로 이끌어 간 것은 역시 '인도주의' 즉 '휴머니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박도식 편저, 홍순성 감수



남구의 민속과 문화 부산남구민속회

앞서 발간했던 '남구민속 1·2·3집'을 새로운 체계와 내용으로 대폭 수정·보완해 발간한 합본집이다. 용호동·대연동·감만동·용당·문현동·우암동의 민속과 문화, 남구의 바다와 삶, 오륙도와 UN공원 등 조사한 내용을 읽기 쉽고 접하기 쉽도록 깔끔하게 편집했다. 수십통의 녹음테이프와 기록자료, 수백 장의 현장사진들을 채록하고 정리한 이 책은 사실중심의 글과 사진들로 읽는 이들에게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신세대들에게 역사 속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



진도군 1968년 상주인구조사자료 진도문화원

진도군이 생긴 이후 인구수의 변화모습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이 책의 통계는 1968년 10월 1일 0시를 시점으로 군내 전역에 걸쳐 조사한 1968년도 진도군 상주인구조사 결과다. 상주인구조사는 지정통계 제7호에 근거해 조사했고 실시조례에 의해 가구 및 인구와 연령구조 경제활동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했다. 책의 내용은 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면·리별로 분류편찬 했다. 인구수에 관한 史的가치가 중차대 한 요즘, 이 인구 조사 자료집은 도·군정 제반시책 수립과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의 정기간행물

- 갑천문화 2001.12 (대전서구문화원)
- 公主文化消息 통권229호 (공주문화원)
- 畿甸 문화예술 2001. 11 · 12 (경기문화재단)
- 蘆嶺 통권100호 (진주문화원)
- 레일로드 2001.12 (철도방송)
- 목포문화사랑 통권61호 (목포문화원)
- 문화가족 제23호 (진해문화원)
- 문화공간 2001.12 (세종문화회관)
- 문화도시 문화복지 제117호(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문화유성 2001. 12 (유성문화원)
- 미르 2001.12 (국립극장)
- 민족예술 2001.12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사상문화 통권6호 (사상문화원)
- 夕汀文學 제14집 (夕汀文學會)
- 약호코리아 2001.12 (국정홍보처)
- 오산문화 25호 (오산문화원)
- 月出의 脈搏 통권117호(영암문화원)
- 藝術世界 2001.12 (한국예총)
- 中區文化 제5호 (중구문화원)
- 천안문학 2001 겨울호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
- 천안문화 제33호 (천안문화원)
- PEOPLE WORLD 2001.12 (인간개발연구원)

‘2002년 이달의 문화인물’ 주요약력

1월-정약중(丁若鍾) | 종교 1760~1801 조선후기의 학자·순교자, 정약용의 셋째형, 한국 최초의 조선천주교 회장, 주요저서: ‘주교요지’ 주요작품: ‘성교전서’.

2월-김환기(金煥基) | 미술 1913~1974 서양화가, 호는 수화, 초기에는 한국적 전통미학을 서구적 수법으로 표현, 도미이후 시각에 호소하는 새로운 회화세계 개척.

3월-이상재(李商在) | 한국학 1850~1927 호는 월남, 사회운동가, 정치가, 언론인, 종교인, 서재필과 독립협회 조직, 조선일보 사장, 신간회 초대회장.

4월-박두성(朴斗星) | 교육 1888~1963 인천 강화 출신, 호는 송암,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 창안, 의학·복술학·안마지압 등 76종류의 맹인용 교육자료 제작·보급.

5월-박수근(朴壽根) | 미술 1914~1965 서양화가, 서민층의 모습을 주제로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기법의 작품을 많이 남김.

6월-조지훈(趙芝薰) | 문학 1920~1968 시인, 청록파 결성, 민족적 정서와 전통에의 향수 및 불교적 선미를 다룬 작품을 발표, 주요작품집: ‘여운’ ‘창에 기대어’ ‘시와 인생’.

7월-성삼문(成三問) | 어문 1418~1456 조선학자, 사육신, 호는 매죽헌, 한글창제를 위해 요동에 13번이나 내왕한 끝에 훈민정음 창제에 힘.

8월-박효관(朴孝寬) | 음악 연대미상. 호는 운애, 조선조 고종때 가곡의 명인, 제자 안민영과 함께 가곡원류 편찬.

9월-김병연(金炳淵) | 문학 1807~1863 조선후기 방랑시인, 별호는 김삿갓, 20세 무렵부터 방랑을 하면서 풍자와 해학을 담은 한시를 즐겨 창작, 그의 시를 묶은 ‘김립시집’이 있음.

10월-신숙주(申叔舟) | 어문 1417~1475 호는 보한재, 전남 나주 출신, 영의정 등 역임, 한글창제에 공헌, 주요저서: ‘해동제국기’ ‘보한재문집’ ‘칠정산내외편’.

11월-김승호(金勝鎬) | 영화 1917~1968 본명은 김해수, 1960년대 한국의 대표적 영화배우, 250여편의 영화에 출연해 한국영화진흥에 공헌, 대표작: ‘마부’ ‘박서방’.

12월-손진태(孫晉泰) | 한국학 1900~? 호는 남창, 민속학자, 국사학자, 1932년 조선민속학회 창설,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회지 ‘조선민속’ 창간, 저서: ‘조선민속사개론’ ‘국사대요’.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214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02-518-1294)
- 종로문화원(02-731-0628)
- 중구문화원(02-775-3001)
- 용산문화원(02-703-0052)
- 성동문화원(02-2290-7714)
- 광진문화원(02-447-9364)
- 동대문문화원(02-2241-9300)
- 중랑문화원(02-492-0066~7)
- 성북문화원(02-765-1611)
- 강북문화원(02-984-8086~7)
- 도봉문화원(02-905-4026)
- 노원문화원(02-938-1244)
- 은평문화원(02-383-9300~2)
- 마포문화원(02-312-1100)
- 양천문화원(02-651-5300)
- 강서문화원(02-3661-8233)
- 동작문화원(02-822-8500)
- 관악문화원(02-885-5975)
- 강남문화원(02-518-1295)
- 송파문화원(02-414-0354)
- 강동문화원(02-476-6681)
- 금천문화원(02-896-8553)
- 영등포문화원(02-846-0155)
- 서대문문화원(02-3217-1592~3)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지회(051-555-1441)
- 동래문화원(051-555-1441)
- 북구낙동문화원(051-301-2710)
- 강서문화원(051-972-6369)

- 연제문화원(051-759-3113)
- 기장문화원(051-724-2224)
- 사상문화원(051-310-4894)
- 금정문화원(051-581-9071~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지회(053-744-7950)
- 중구문화원(053-255-5123)
- 달성문화원(053-611-0010)
- 남구문화원(053-652-4450)
- 북구문화원(053-326-2555)
- 서구문화원(053-563-9066)
- 달서구문화원(053-553-4800)
- 동구팔공문화원(053-984-8774)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032-761-2778)
- 부평문화원(032-505-9001)
- 강화문화원(032-932-0011)
- 연수문화원(032-821-6229)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062-527-7701)
- 동구문화원(062-225-5815)
- 서구문화원(062-652-4148)
- 남구문화원(062-361-7256)
- 북구문화원(062-527-7701)
- 광산문화원(062-941-3377)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042-627-7517)
- 동구문화원(042-274-2135)
- 중구문화원(042-256-3684)
- 서구문화원(042-488-5474)

- 유성문화원(042-862-6969)
- 대덕문화원(042-627-7517)

울산광역시

- 울산동구문화원(052-234-2202)
- 울산남구문화원(052-266-3786~7)
- 울주문화원(052-279-0527)
- 울산중구문화원(052-244-2007~8)

경기도

- 경기도지회(031-239-1020)
- 수원문화원(031-244-2161~3)
- 성남문화원(031-781-1020)
- 의정부문화원(031-872-5678)
- 안양문화원(031-449-4451)
- 부천문화원(031-651-3739)
- 광명문화원(031-618-5800)
- 평택문화원(031-655-2184)
- 동두천문화원(031-865-2923)
- 안산문화원(031-480-9823~5)
- 고양문화원(031-963-0600)
- 과천문화원(031-504-6513)
- 구리문화원(031-557-6383)
- 남양주문화원(031-592-0667)
- 오산문화원(031-375-7755)
- 시흥문화원(031-315-6465)
- 군포문화원(031-397-0195)
- 하남문화원(031-795-1020)
- 용인문화원(031-335-2033)
- 파주문화원(031-941-2425)
- 이천문화원(031-635-2316)
- 안성문화원(031-673-2625)

- 김포문화원(031-984-6550)
- 양주문화원(031-840-6467)
- 여주문화원(031-883-3450)
- 화성문화원(031-353-6330)
- 광주문화원(031-764-0686)
- 연천문화원(031-834-2350)
- 포천문화원(031-532-5055)
- 가평문화원(031-582-2016)
- 양평문화원(031-771-3866)
- 의왕문화원(031-456-4994)

강원도

- 강원도지회(033-255-5105)
- 춘천문화원(033-254-5105)
- 원주문화원(033-764-3794)
- 강릉문화원(033-648-3014)
- 동해문화원(033-531-3298)
- 태백문화원(033-553-3161)
- 속초문화원(033-632-1231)
- 삼척문화원(033-573-2882)
- 홍천문화원(033-434-2080)
- 횡성문화원(033-343-2271)
- 영월문화원(033-373-3434)
- 평창문화원(033-332-3546)
- 정선문화원(033-563-5471)
- 철원문화원(033-452-6235)
- 화천문화원(033-442-2607)
- 양구문화원(033-481-2681)
- 인제문화원(033-461-6678)
- 고성문화원(033-681-2922)
- 양양문화원(033-461-6678)

‘지역문화’가 궁금하면 노크하십시오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043-733-5588)
- 청주문화원(043-256-3624)
- 충주문화원(043-847-3906)
- 제천문화원(043-646-3646)
- 청원문화원(043-257-2858)
- 보은문화원(043-544-2314)
- 옥천문화원(043-733-5588)
- 영동문화원(043-742-2215)
- 진천문화원(043-533-2744)
- 괴산문화원(043-832-3588)
- 음성문화원(043-872-4084)
- 단양문화원(043-423-0701)
- 증평문화원(043-836-3400)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041-667-0417)
- 천안문화원(041-575-3004)
- 공주문화원(041-852-9005)
- 서산문화원(041-669-5050)
- 논산문화원(041-732-2395)
- 금산문화원(041-754-2724)
- 부여문화원(041-835-3318)
- 서천문화원(041-953-0123)
- 청양문화원(041-943-4774)
- 홍성문화원(041-632-3613)
- 예산문화원(041-335-2441)
- 태안문화원(041-674-2192)
- 당진문화원(041-354-2367)
- 대천문화원(041-934-3061)
- 온양문화원(041-545-2222)
- 조치원문화원(041-865-2411)

- 아우내문화원(041-564-1022)
- 성환문화원(041-581-2101)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063-287-5509)
- 전주문화원(063-288-7500)
- 군산문화원(063-451-2138)
- 익산문화원(063-835-0120)
- 정읍문화원(063-532-8723)
- 남원문화원(063-633-1582)
- 김제문화원(063-547-4659)
- 원주문화원(063-263-4335)
- 진안문화원(063-433-1674)
- 무주문화원(063-324-1300)
- 장수문화원(063-351-5349)
- 임실문화원(063-642-2211)
- 순창문화원(063-653-2069)
- 고창문화원(063-564-2340)
- 부안문화원(063-583-2101)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062-223-0019)
- 목포문화원(061-244-0044)
- 여수시문화원(061-682-5388)
- 순천문화원(061-723-4563)
- 나주문화원(061-332-5115)
- 광양문화원(061-763-0496)
- 담양문화원(061-383-6066)
- 곡성문화원(061-362-0890)
- 구례문화원(061-782-8802)
- 고흥문화원(061-835-5245)
- 보성문화원(061-852-2629)
- 화순문화원(061-374-3333)
- 장흥문화원(061-863-6362)

- 강진문화원(061-433-7373)
- 해남문화원(061-533-5345)
- 영암문화원(061-473-2632)
- 무안문화원(061-452-8648)
- 함평문화원(061-322-0505)
- 영광문화원(061-351-3255)
- 장성문화원(061-392-1796)
- 완도문화원(061-552-4834)
- 진도문화원(061-542-1108)
- 신안문화원(061-242-8131)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054-556-5234)
- 포항문화원(054-242-4711)
- 경주문화원(054-743-7182)
- 김천문화원(054-434-4336)
- 안동문화원(054-859-0825)
- 구미문화원(054-482-5422)
- 영주문화원(054-631-3300)
- 영천문화원(054-334-3030)
- 상주문화원(054-535-2339)
- 문경문화원(054-555-2571)
- 경산문화원(054-815-0593)
- 군위문화원(054-383-2003)
- 의성문화원(054-834-5048)
- 청송문화원(054-873-2527)
- 영양문화원(054-682-1378)
- 영덕문화원(054-734-2456)
- 청도문화원(054-371-2514)
- 고령문화원(054-954-2347)
- 성주문화원(054-933-0700~1)

- 칠곡문화원(054-974-0450)
- 예천문화원(054-654-3833)
- 봉화문화원(054-673-2350)
- 울진문화원(054-783-2270)
- 울릉문화원(054-791-0245)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055-2293-1186)
- 창원문화원(055-284-8870)
- 마산문화원(055-243-5222)
- 진주문화원(055-746-5001)
- 진해문화원(055-544-8880)
- 통영문화원(055-645-7755)
- 사천문화원(055-833-3163)
- 김해문화원(055-336-2646)
- 밀양문화원(055-352-3010)
- 거제문화원(055-681-2603)
- 양산문화원(055-386-0890)
- 의령문화원(055-573-2034)
- 함안문화원(055-583-2290)
- 창녕문화원(055-533-3777)
- 고성문화원(055-672-3805)
- 남해문화원(055-864-6969)
- 하동문화원(055-884-3929)
- 산청문화원(055-973-0977)
- 함양문화원(055-963-2646)
- 거창문화원(055-942-6166)
- 함천문화원(055-931-2401)

제주도

- 제주도지회(064-722-0203)
- 제주문화원(064-722-0203)
- 서귀포문화원(064-733-3789)

대전대덕문화원(www.ddcc.or.kr)

‘꾸준한 질문’에 ‘신속한 답변’

박 계 현 기자 fire@kccf.or.kr

‘有名有實’, 대전대덕문화원 홈페이지는 실속있다. 오른쪽 상단 메뉴부터 살펴보면 각 카테고리마다 세부항목이 알차게 들어있다. △역사&인물=대덕의 역사, 대덕의 인물, 관직의 품계, 과거제도. △문화유산=전통건축, 정려, 산성, 석불, 고서&고문서, 금석문. △회덕향교=역사, 배향인물, 위치와 구성, 용어해설, 소장자료, 현판 등. 이들 항목은 또다시 해당자료별로 분류돼 항목마다 현장사진과 함께 관련내용을 소상히 설명한다. 그 분류체계와 내용은 가히 ‘대전향토문화대전’이라 할만하다.

또 대덕민의 참여도 활발하다. 왼쪽 메뉴판에는 ‘알림방’ ‘문화강좌’ ‘제안 및 질문’ ‘방명록’ ‘문화원 소개’ ‘찾아오는 길’ ‘관련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대덕

문화원과 지역민들의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 특히 ‘제안 및 질문’을 링크해 보면 질문도 꾸준히 대덕문화원 측의 답변 또한 신속하고 정확해 홈페이지 운영자의 성의를 엿볼 수 있다.

대덕문화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은 2001년 12월 26일 현재 43401명이고, 각각의 항목마다 조회수도 많아 대덕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대덕문화원 E-Mail로 자동 링크될 수 있는 왼쪽의 메뉴가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방문자들은 자발적으로 문화에 참여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

다만 하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선 마우스를 여러번 클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예를 들어 문화학교 강좌를 알아보려면 첫화면에서 메뉴화면으로 이동해야 하고 문화강좌를 또 클릭해야 한다. 이미 정보가 갱신됐어야 할 문화강좌안내(작년 강좌내용)는 차치하고라고 그 정도의 정보는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면 첫화면이 주는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 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相关资料 또는 정보의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꽃꽂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